朝鮮日報 夕刊 三十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十二月一日을期코 프랑코政權正式承認
承認에關한諸手續은完了
卅日午後에正式通告

프랑코將軍

【東京電話同盟】帝國政府는 國際的赤化破壞工作防衛의 目的으로 드듸어 十二月一日을期하야 프랑코政權을 西班牙國政府로서 正式承認하기로決定하고 堀內外務次官은 三十日午前十一時十八分 外務省에 西班牙元神戶總領事 카스테이요氏의 來訪을求하야 帝國政府가 프랑코 政權을 承認함에 對한 萬端의 手續에關한 協議를行하엿다 따라서 廣田外相은 三十日 午後三時 宮中에 參內 上奏御裁可를 仰한後 카스테이요氏의 來訪을求하야 正式 프랑코政權을 承認할旨의 通告를하기로 決定하엿다

佛國西大使 廣田外相과會談

【東京電話同盟】알르센佛國駐日西大使는 二十九日午後三時半外務省에 廣田外相을 訪問하고 要談三十分으로 辭去하엿다

山田、長野兩部隊가 廣德一角奪取
今日中에完全陷落乎

【長興에서 三十日同盟特派員發】山田、長野兩部隊는 三十日早 廣德總攻擊을 開始、即時敵陣을 突破하야 午前八時 벌서 城壁에 殺到、戰車隊의一部는 城內一角을 奪取하엿다

【長興에서三十日同盟特派員發】長野、山田等의 各部隊는 가장困難한 山岳地形에서 廣德의 有力한 敵과 對戰하야 二十九日終日의 激戰으로 十里店의 敵警備陣地를 奪取하고 三十日早曉에 一齊히 攻擊한結果、다시戰果를 進行하야 午前八時에 頑强히 抵抗하는 敵陣을 突破하고 市內의 城壁에 殺到하야 肉迫하엿다 南京背面防備基點의 重點인만큼 敵의 抵抗도 强硬하야 主力部隊와 交戰中인 我〇〇戰車隊의 一部는 城內를 突破하고 市內의 一部에 進入하야 敵陣을 蹂躪하고잇다 湖西會戰에 殘存한 江蘇 浙江 安徽三省境의 要塞廣德의 陷落도 아마 今日中으로 觀測되게되엿다

南京陷落目標코 第一線部隊猛擊開始

【上海卅日發同盟】二十九日夜까지에 江陰城과 그西方의 三要害據點 全部를 占領하야 絕大한 戰果를收한 我第一線各部隊는 三十日早曉를 따라 벌서 南京을 삼켜보는 各各 進擊을開始하엿다 即 宜興을 占領하고 溧陽에 向한〇〇部隊는 前方의 敗敵을 擊破하야 西方으로 壓迫하면서 今早朝에는 溧陽附近에 追到하고 京滬鐵路에 沿하야 前進中인〇〇部隊는 今早曉에 丹陽北方의 呂城鎭의 一角에 達하엿다 또 江陰要塞를 攻略하야 殊勳을세운 〇〇部隊는 今朝까지에 城內와砲台의殘敵掃蕩을 完了하고 그先鋒部隊의 一部는 鎭江에 通하는 道路上을 潰走하는 敗敵에게 猛烈한 夜間追擊을 敢行하야 三十日午前九時에는 西石橋를 攻略하고 다시敵을 西方으로 制壓中이다

宋子文私財整理

【香港二十九日發同盟】宋子文의 動靜은 嚴秘에附하야 二十八日夕코의·호스호號에便乘하고 香港에 왓다고하며 또今夜深更香港入港의 佛國汽船아라미스號에 便乘하엿다고하고 或은 이미 마닐라 市에上陸하엿다는等여러가지消息이 들리고잇는데 事實은上海南市陷落後 宋子文은家族과 同地로부터 汽船으로 漢口로 二十四日漢口로부터 香港에온것이判明되엿다 當地에서는 近親者와 近接케하야 善後策에對하야 協議하고잇는데 彼等은 어미南京政府의 沒落을 時日問題라하고 頹勢는엇지할수업다 하더라도 不得已하다고 積極的策動을 하고 專혀私財整理와 亡命準備에 奔忙하고잇다고한다

佛租界內에 便衣隊跳梁

【上海二十九日發同盟】去二十七日楓林橋附近에서 我河邊部隊가 南市를 警備하는中 佛租界境界線으로부터 突然五名의 便衣隊가 나타나 我警備兵에 銃彈을 亂射하엿스므로 我方은 即時이에 反擊을 加하야 그中四名을 射殺하엿스나 一名은佛租界로 逃亡하엿다 그런데 二十九日午後二時 또다시佛租界境界線의 警備兵을 狙擊하여 事件이發生되엿다 右便衣隊는 南市陷落以來 佛租界內에 蟠居하야 地下運動을 繼續하고잇는 靑幇의 一黨으로 觀測되며 南市警備隊는 嚴重히 이를追及하고잇다

海關接收에關해 伊紙日本을支持

【羅馬二十九日發同盟】伊太利各新聞은 二十九日의 紙上에여러가지의角度로부터 日本의 上海租界、海關과郵政權接收의 要求를 支持하는論評을揭載하야 注目을惹起하고잇다 一方政界方面에서는 日本의要求에對하야 英國이干涉的態度에出한것을 도리혀意外로생각하고잇다

海關接收에關해 米國務省申請發表

【華盛頓二十九日發同盟】米國國

安徽省境突破 廣德을猛攻擊

【上海二十九日發同盟】長興으로부터 西進한片岡 小堺各部隊는 困苦를冒하고 安徽省境을 突破하야 南京背後의敵 第一線陣地인 廣德을猛攻擊中이다 敵은 新軍의 增援을어더 猛烈히 抵抗을하고잇서 今朝來戰鬪는 刻刻激烈을더하야 銃砲聲은 山野에 轟轟히울리어온다

上海脫出 浙江財閥領袖等

【上海二十九日發同盟】浙江財閥의 領袖 錢永銘 王曉籟와 靑幇의 巨頭 杜月笙은 二十八日上海를 脫出하야 佛國汽船아라미스號로 香港으로 向하엿다

二十九日現在 香港에逃避한要人

方面의 總指揮에 當하고잇는陳誠도 數日前 來香하엿다는 說이잇고 軍政部長何應欽은 二十日中으로 來香할 豫定이라고傳한다 그리고 上海陷落後二十九日까지에香港으로 逃避한要人은 左와如히多數에 達한다

立法院長 孫科
經濟委員會常務委員 宋子文
及그弟 宋子安
上海市長 兪鴻鈞
上海教育局長 潘公展
中央銀行總經理 宋漢章
前財政部次長前上海海關監督 唐海安
及上海財界有力者 杜月笙 王曉籟

南京外國人 續續避難

【上海三十日發同盟】皇軍의南京進擊은 더욱緊迫하여오기때문에 南京城內의不安은益益增大하고 人心의動搖는 逐日甚하여간다 南京在住의 外國人은 萬一을念慮하야 城內를 逃避하야 揚子江上의自國軍艦 "하루구"에 續續避難하고잇고 그外에도 大使館을 目標하고 또는大使館附近으로 集合하는避難民의 保護에 萬全을講究하고잇다 英國軍艦스카라브號는 今週中으로 漢口로부터 南京에 下江하야 目下南京에 碇泊中인 크리켓트號와 함께 英國人의避難에 備하게되엿다

陸軍精銳部隊 敗退의敵을太半殲滅

【〇〇二十九日發同盟】陸軍의至中의精銳部隊는 二十九日午前十一時頃 河北省으로부터 敗退한敵을 掃蕩하고잇섯는데 滄縣東北 約十粁의 白衣閘 其他附近에서 各一、二千의敵을 發見하고 이에徹底的爆擊을 加하고 또 滄縣附近에서 黃河를건너 南方으로 敗走하는 敵兵約一萬을 發見하고 이를爆擊하야 그太半을 殲滅하엿다

時事解說 南京攻略第三期戰

南京附近의 日支兩軍의 戰鬪는 第三期에 드러갓다는 말이엇다 第三期라함은 第一期、第二期의 對稱인데 그러면 第一期 第二期는 어떤것인가. 軍事家의 말에依하면 上海陷落後 崑山、白茆口、松江을 連絡하는 湖沼地帶의 所謂 힌덴부르그線이 [illegible]

◇

上海陷落을 促進시킨 原因에 杭州灣北岸 金山口에 上陸한 有力한 部隊의 上海側面攻擊에 잇든것은 周知의事實이나 所謂 힌덴부르그線이라 [illegible]

◇

支那軍은 上海陷落以後 吳淞에 [illegible] 江陰에 支那第一가는 [illegible] 하다。

(日·S)

【香港三十日發同盟】上海陷落以來 同方面의 支那要人은 外國汽船에依하야 秘密裡에 上海를 脫出하야 續續香港으로 逃亡하고잇는데 上海

務省은 日本側의 上海海關接收問題에對하야 日本政府에 正式으로 申請을하엿다고 二十九日午前 左와如히發表하엿다

東京駐劄그루大使는 二十七日 日本外務省에對하야 口頭로써 日本側의 上海海關接收에對하야 申請을하고 二十九日 다시文書로써 正式으로申請하엿다 但右正式申請의內容은 發表되지안헛다

新通商協定締結코 日伊經濟提携强化

【羅馬二十九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二十九日滿洲國을 正式으로 承認하야 日滿兩國에對하야 友好的態度를 一層明白히하엿는데 뒤이어 伊太利政府는 日伊新通商協定의 締結을 急히하야 日伊經濟提携에依한 兩國의關係를 더욱緊密化할方針이라고 傳한다 新通商協定은 特히 日本의 對에디오피아貿易再開를 主眼으로하야 日本의商品과 에디오피아의 原料品과의 交換을企圖할것으로 觀測된다

伊政府發表 公使館新設

【羅馬二十九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二十九日 午後滿洲國을正式으로 承認하고 新京에 伊太利公使館을 新設할것을 公式으로 發表하엿다

小川民政幹事長談

【東京電話同盟】滿洲國이 形態事實과함께獨立國으로 完備한것은 새삼스러히말할 必要도업다 따라서 今回伊太利가 率先하야 此를承認하게된것은 當然한일이나 그러나 一面이것은 伊太利가 東洋의 實情을 잘認識하고잇는結果로 欣快한일이다 이러하야 적어도東洋의 平和를 念願하는나라는 이것을본바더 速히 滿洲國을 承認하야 써世界平和에貢獻할것으로 確信한다

松野政友幹事長談

【東京電話同盟】伊太利가 今回 滿洲國을 承認하게된것은 滿洲

伊의滿洲承認으로 英、極東政策修正不可避

【倫敦二十九日同盟特派員發】伊太利政府의 滿洲國承認에對하야 英國政府當局은 一切批評을避하고잇스나 倫敦의消息通은 伊太利政府의 今回의事로서 英米各國의 極東政策에 相當한衝動을 주고 將來에影響을 미치는것은 否定할수업다하고 特히英國의對伊政策은 今次의 英佛會議에 나타난것과가티 不得已 相當한 修正을加하게되리라觀測된다 他方英國當局에서는 [illegible] 失望하고잇는터에 今後伊太利의滿洲進出이 實現될으로 이方面에 더욱强한 刺戟을주어不滿의소리가 이러나는 同時에 英國의 極東政策反省의 소리가 一部에 이러나리라豫想된다 [illegible]

滿洲國承認과 伊紙論評

【羅馬二十九日發同盟】伊太利各紙는 二十九日의 夕刊紙上에 一齊히 伊太利政府의 滿洲國承認에 關해 大大的으로 揭載하야 伊太利外交政策의 意義를 [illegible] 하고 [illegible] 赤化工作은 支那로 擴張되고 [illegible] 伊太利政府가 新京에公使館을 開設하는意味는 極東諸國間의 關係를 擴大改善하야 그間에平和的經濟的文化的으로 指導發展케할것이다

張滿洲國總理聲明

【新京廿九日發同盟】伊太利政府의 滿洲國承認에對한 張景惠總理의 聲明은 左와갓다 伊太利國은 今廿九日 正式으로 承認하엿다 滿洲國政府와 國民은 이吉報를 接하고 欣喜를 不堪하야 멀리伊太利政府와 國民에게 對하야 熱烈한 謝意를 表한다 생각컨대 我國은 建國以來僅五年에 不過하나 그間 盟邦大日本帝國의 絕對한 援助를 得하야 國礎는 益益鞏固하고 國運은 益益隆昌을 加하야 가까이는 治外法權撤廢와 南滿洲鐵道附屬地行政權의 移讓을보아 近代國家의 威容을 完成하엿다 이때를當하야 世界的友邦伊太利國의 正式承認을得함은 當然한일이지마는 近時共産主義가 跋扈猖獗하야 마츰내東으로支那 西으로西班牙에잇서서 그害毒을 바드에

日滿外相에人事狀 伊外相차노伯

【羅馬二十九日發同盟】차노外相은 二十九日伊太利政府의 滿洲國正式承認을 發表하는同時에 滿洲國外交部長官大橋忠一氏에게 電報로써 左와如히 人事의말을하엿다 滿洲、伊太利兩國間에 正常한 外交關係가 開始됨을當하야余는 閣下에게對하야 罷시스트 政府와 伊太利國民으로부터보내는 鄭重한 人事의말을 傳達하고 아울러 滿洲國의 將來의 幸福을 衷心希望한다

明年度의豫算總額 廿八億六千八百萬圓
今年度豫算보다五千四百萬圓增加
卅日閣議에附議決定

【東京電話同盟】政府는三十日閣議에서 昭和十三年度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을 決定하엿는데 豫算總額은二十八億六千八百二十九萬九千圓으로 昭和十二年度當初成立本豫算 二十八億一千三百九十三萬七千圓에 比하야 五千四百五十八萬二千圓의 增加이다 그內譯은 左와如하다 (單位千圓)

昭和十三年度歲入歲出槪算 (計數를整理한結果移動을生할수잇다)

歲入	
經常部	二、〇二二、九三三
臨時部	八四五、三六五
內譯 普通歲入	一五一、二九六
公債金	六九四、〇六八
合計	二、八六八、二九九
歲出	
經常部	一、六四〇、八七五
臨時部	一、二二七、四二三
合計	二、八六八、二九九

歲入歲出差引過不足은업다

昭和十三年度歲出槪算各省別內譯

	經常部	臨時部	計
皇室費	四、五〇〇	―	四、五〇〇
外務省	一八、〇〇〇	一〇、〇〇〇	二八、〇〇〇
內務省	四四、〇〇〇	一九二、〇〇〇	二三六、〇〇〇
大藏省	六三八、〇〇〇	五三、〇〇〇	六九一、〇〇〇
陸軍省	一六五、〇〇〇	三九八、〇〇〇	五六四、〇〇〇
海軍省	二九三、〇〇〇	三八三、〇〇〇	六七七、〇〇〇
司法省	四〇、〇〇〇	二、〇〇〇	四三、〇〇〇
文部省	一三三、〇〇〇	一〇、〇〇〇	一四三、〇〇〇
農林省	三五、〇〇〇	七二、〇〇〇	一〇八、〇〇〇
商工省	七、〇〇〇	三六、〇〇〇	四三、〇〇〇
遞信省	一九三、〇〇〇	二二、〇〇〇	二一五、〇〇〇
拓務省	二、〇〇〇	二三、〇〇〇	二五、〇〇〇
保健社會省	六三、〇〇〇	二二、〇〇〇	八五、〇〇〇
合計	一、六四〇、〇〇〇	一、二二七、〇〇〇	二、八六八、〇〇〇

以上은 槪算이므로 計數整理의結果 異動을 生하는일이잇슬것이다 各省豫算과 合計와는 八萬圓以下를 計算치아니하엿스므로 반드시 一致되지안는다 (寫眞은 賀屋藏相)

明年度歲入內譯

【東京電話同盟】明年度普通歲入總額은 二十一億七千萬圓 公債收入은 六億九千萬圓인데 그內譯은 左와갓다 (單位千圓)

▲普通歲入	二、一七〇、〇〇〇
內譯	
租稅	一、四三三、〇〇〇
印紙收入	九九、〇〇〇
森林收入	四九、〇〇〇
專賣局益金	三四三、〇〇〇
通信事業	
特別會計納付金	八一、〇〇〇
日本銀行納付金	一五、〇〇〇
臨時利得稅	七六、〇〇〇
其他	一八〇、〇〇〇
▲公債金	六九〇、〇〇〇
內譯	
歲入補塡公債	五六〇、〇〇〇
其他公債(滿洲事件、債道路公債)	一三〇、〇〇〇
▲合計	二、八六〇、〇〇〇

近衛首相歸京

【東京電話同盟】皇威宣揚과皇軍의戰勝祈願을爲하야 西下中이든 近衛首相은 二十九日午後三時四十五分에 名古屋驛을發하야 同九時十分着 쓰바메號로歸京하야 即時麴町永田町의自邸로드러갓다

定例局長會議

總督府 定例局長會議는 三十日午前十時五分 第三會議室에開催하고 吉田鐵道局長으로부터滿浦線 前川、江界間 四七粁半、東海線、襄陽、杆城間四二粁는 明一日부터 高原城內里間 三〇粁는十二月十六日부터 各各 開通된다고 報告하고 다음 宮本法務局長은 刑務所內의 軍需關係事業納入額은 十一月末까지에 達하고 또 年度內로는 三十五萬圓을 納入할 豫想으로 合計 六十七萬二萬五千圓이되야 滿洲事變當時에比하야非常한 增加를 보인다

全世界注視裡 英佛會談遂開幕
會談內容은極秘密로

【倫敦二十九日發同盟】英佛會談은 全世界의 注目裡에 二十九日午前十一時五分부터 따우닝街十番地英國首相官邸會議室에서開催되엿다 英國側으로부터 첸벌린首相 이든外相 英獨會談의役割者할리팩스樞相 뺀보外相이 出席하고 餘人을 避하고 重要協議에드러갓다

【倫敦二十九日發同盟】歐洲國際政局에 重大轉機를 劃할것을보이는 英佛會談은二十九日午前十一時따우닝街十番街英國首相官邸에 開會 討議는午餐中에도繼續되어 前後七時間後인午後六時二十分第一日會談을終了하고 佛國側代表 쇼탕首相以下는 宿舍에도라갓다 英佛會談의 第二日은三十日午前十時부터 首相官邸에서 再開할 다음 佛國側代表一行은 午後六時四十分 倫敦驛발로 歸國의途程에 오를터이다 (寫眞은上으로부터 英首 外相及 佛首 外相)

支那借款交涉說 英國官邊은否定

【倫敦二十九日發同盟】支那政府는 九個國條約會議失敗로 어떤에는 英米에對하야 約一億磅의武器購入借款을 獲得하려고 駐佛大使顧維鈞이 交涉中이라는 說이一部에傳하고잇는데 二十九日로이텔通信은 英國官邊의消息으로서 어떤說은 全然否定하는 同時에 서리有力側에서도 如斯한報道의 基礎가될만한如何한借款의 提案도 支那로부터提議받은 事實이업다고하는 言을 報道하엿다

國府遷都式 十二月一日擧行

【上海卅日發同盟】漢口來電에依하면 外交部長 王寵惠는 南閣諸委員長 張伯苓、實業部次長周詒春、實業部總務司長 經濟豫等을 同伴하야 二十八日 午後八時 長沙로부터 重慶에 到着하엿다 그리고 各各 漢口에 到着하엿다 그리고 國民政府는 十二月一日 重慶에서 遷都式을 擧行할計劃인데 張伯苓은 이에 參加하기爲하야 飛行機로 重慶에 赴하고 目下旅行中인 葉楚傖、吳稚暉、丁惟汾、鈕永建等의 要人은 三十日 重慶에 赴할豫定이다

在滿朝鮮人保護 功績者에記念品

滿洲國에對한 治外法權撤廢에 際하야 總督府에서는 在滿朝鮮人의 保護指導에關하야 永年功績이잇는 朝鮮人民會役員 三百十五名 總督府關係職員千四百五十九名、總督府派遣員 其他合計二千名에對하야 感謝狀을添하야 記念品을贈呈하엿다

靑少年移民의 一部復活要求

【東京電話同盟】拓務省에서는요전에 國策의 一項目으로 決定한 滿洲移民第一期五個年計劃十萬戶에 要하는 經費로 明年度 豫算에서 集團移民一萬人 自由移民五千人 靑少年移民一萬人에 要하는 經費一千九百萬圓을 要求하엿는데 新規要求額은 全部削減을 加하야 겨우本年과가티 集團移民五千人 自由移民一千人에 要하는 經費五百五十八萬五千圓이 承認되야 新移民計劃案의 實行은 延期할밧게 업게되엿스므로拓務省에서는 靑少年移民費에 對하야 追加豫算을 要求하야 一部承認을求할方針으로 折衝하고잇다

고 報告하고 다음三橋警務、山田遞信 兩局長 井坂文書課長의 報告가잇고 最後에南總督은 伊太利의滿洲國承認에關한 所感을 述하야官民一同의 奮起를 促하야「今後에益益滿洲國을 中心으로하는問題가 複雜化하리라」고述하고 同四十分散會하엿다

辭令

任總督府事務官(七等) 伊澤作之助
總督府專賣局副事務官 松井三郞
同 岡彰
依願免本官 總督府專賣局長事務官 下田勝久
同 井上庄平
同 松井卯一
(慶南)總督府道技師兼道立醫官 龜田郁
總督府道理事官 山田隆
朝鮮道立醫院醫官 河野茂
同 金光瓚
同 藏口政次郞
依願免本官(各通)

人事·集會

▲李東善氏(醫師) 市內竹添町一丁目八一에서開業人事次來社

八面鋒

◇ 昨日正午、伊太利政府 正式으로 滿洲國承認。

◇ 列强으로서 滿洲國을 承認한最初 레코드。

◇ 이로써 日伊의 提携 더욱鞏固해지고、聯盟加入國에 一大警鐘이 되다。

◇ 天下事 事實과 時間에 解決。

◇ 堅固를 자랑하든 江陰砲臺도 히덴부르그線과 가티 쉽게 陷落。

◇ 南門을 돌릴수 업는 砲臺자 뒤로부터 달려들면 陷落될것은 容易。

◇ 撫原事務局長談中 初等學校의 共學은 强制치안는다고。

◇ 强制치 안흐면 아니된 風俗習慣、傳統에 서로지안케 마로 敎育시킴이 適當。

◇ 明春 滿洲移民 一萬戶를 豫定했다고。

◇ 가서 滿足해 살만한 條件 어면 滿洲나 西比里亞ㅣ 느를 못가랴。

慶北沿岸에强風害 漁船百餘隻이遭難

安危가念慮되는六百餘名漁夫

警備船이出動救助作業中

【大邱支局電話】이십팔일 경상북도감포항(慶北甘浦港)을중심한 길처지에어선 삼십이척을선두로 구룡포(九龍浦)、강구(江口)、포항(浦港)등 각어항을출범한 백여척의어선은 이십팔일이래 습래한강풍으로인하야 모두행방불명이되엿는데 어부륙백여명의생사가 자못우려된다

【大邱支局電話】삼십일오전구시 삼십오분 경상북도경찰부에 드러온정보에의하면 감포어업조합(甘浦漁組)에서 세척의구조선이 출동하야 조난어선십팔척을구조하얏고 또 영일어업조합(迎日漁組)에서 륙척의 구조선이출동하야 조난어선륙척을 구조하엿다 그런데 영일군창주면(迎日郡倉州面)어부들의 말에 의하면 어선약오십척이 장주근해에서 표류한다하므로 경상북도수산시험장 경비선계림환(鷄林丸)과각 어업조합의 구조선십여척이 출동하야 방금구조작업에 노력중이다

【大邱支局電話】삼십일오전십일 시반경상북도 경찰부에 드러온 정보에의하면 감포항(甘浦港)의 조난어선사십칠척중 삼척은 이미친몰하엿고 나머지는 행방불명이며 포항(浦項)에서출범한조난어선십칠척중 십구척은 행방불명이고 두척은 이미친몰되엇는데 어부들의 생사는 방금조사중이다

【釜山支局電話】영일군창주면치산리(迎日郡倉州面治山里)압바다에서 이십구일아침여섯시 갈치배오척이 승조원배오십명가량을 태우고 고기재비를 나가든중 폭풍을만나 삼십일아침에 도라오지아니하엿슴으로 소관경북경찰부에서는 즉시로 경비선을출동식혀수사한결과 파연어선오척이 풍랑으로말미암아 표류하고잇는중인것을 발견하고 이것을구조하엿스나 남어지사십척은 아직도행방불명이되여 경남경찰부로 이뜻을 수배해왓슴으로 즉시수사에출동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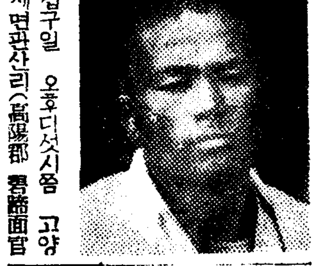
非常時色彩를加味 年末警戒强化!

十二月一日부터市內一齊히

금년도이제 한달밧게남지안헛는데 해마다년말에는 도회인의 마음이바빠지고 이에따라 범죄자들도 만히지는것이어서 경찰에서는 년말경계에 여념이업서온터인데 금년에도 이·년말경계를 하려고 삼십일 경기도형사과에서는 시내각경찰서의 경무사법주임을 소집하야 이에대한 협의를 마치엇다 금년은더구나 비상시의 경계이니만치 이색채를 가미하야일층 그경계를강화하기로되엿는데 십이월일일부터 시내각서에서 적당하게년말일반경계를 시작하고 십오일부터는 본격적특별경계를 하기로 되엿다

碧蹄에强盜出現 소판돈强奪逃走

犯人은即刻逮捕!



이십구일 오후다섯시쯤 고양군벽제면관산리(高陽郡碧蹄面官山里)『선왕당고개』에서 벽제면대좌리(大佐里)에 사는 농부 리복동(李福童)(二六)이가 강도를만나그날파주(坡州)『보일천』시장에서 소한마리를 파라가지고오든 현금일백이십팔원을 강탈당하얏다고한다 이급보를바든서대문서에서는 강본(岡本)사법주임이하 형사대가 벽제주재소에 수사본부를두고 대활동을 개시하엿든바 사건발생후 여덜시간만인 삼십일오전한시쯤 파주군와석면상지석리(坡州郡瓦石面上支石里)자기집에 잠복하고잇든리사봉(李四奉)(二三)을 체포하야취조하엿든바 진범인이 엿섯다고하며 강탈한금액인 일백이십팔원은 그대로 가지고잇섯다한다 이가티 범인이 속히체포된것은 피해자가괴한에게 습격을당하엿슬때 범인의인상과옷을 잘보앗든니 그것이 지난여름자기집부근논에서 가티일하든 사람이엿섯슴으로 수사는 어렵지안케 진행된것이라고한다 (사진은 체포된범인)

明川赤色事件 七名控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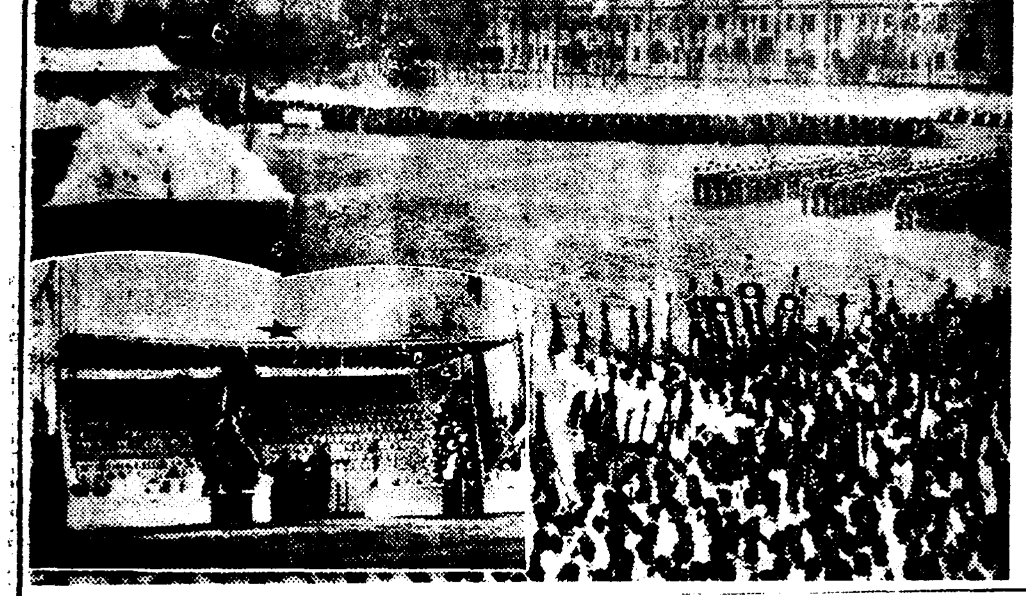
◉지난십이일 청진(淸津)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위반등 죄명으로 최고징역팔년으로부터 최저이년까지의 판결을바든 명천(明川)제일차 적색농민조합(赤色農組)사건관계자 현춘봉(玄春逢)등사십여명중 열네명은 불복공소하야 이십구일 서류와 함께 경성복심법원으로 너머왓는데 그중 수일부명은경성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면서 각각 공소를제기하고 일부역만 남엇는데 그들의씨명은 다음과갓다 ◆玄春逢(二六)(懲役八年)◆金明月(二七)◆金太植(三七)◆李二官釗(三七)◆金命吉(二六)(以上四名 懲役各五年)◆朴仲吉(三七)(同四年)◆金金喜(二?)(同三年六月)

驪州郡下에 殺人强盜

지난이십오일경에 경기도 려주군 흥천면 대당리(驪州郡興川面大塘里)산중에서 부근주민이 나무하러갓다가 기리석자가량의 끈으로 사십여세의 남자한명이 교살되여잇는것을 발견하고 곳 이것을 부근주재소에알렷슴으로 소관 려주서에서는곳활동을개시하야 조사한결과 그시체는 리천군호법면가산리(利川郡戶法面西山里) 김백률(金伯栗)(四?)로판명되엇고 어떤자가 돈을빼아스려고 교살한것이분명하야 방금각지에 그동인강도의 수배를하고잇섯는데 삼십일에는 려주서에 유력한 혐의자한명을 검거하고 엄중문초중이다

官民千餘名參列 合同告別式擧行

今日 七九聯隊營庭서



북지각지의 전선에서 대활약한 전투를하다가 명예에 전사를한 영령(英靈)의 제이회합동고별식은 예정대로 삼십일 오후두시부터 룡산제칠십구련대영정(營庭)에서 유족 군관계자 관민천여명의 참렬로 신식(神式)으로 먼저 수발(修祓)이 잇고서 이어서 초신식(招神式)을 거행하고 제주(祭主)심택중장(深澤中將)의 제문(祭文)랑독이 잇섯스며 이어서 남총독(南總督)소기(小磯)군사령관 좌백(佐伯)경성부윤의 조사(弔詞)랑독과각처로부터온 조전(弔電)피로가 잇섯다 그다음으로 제주이하 관계자 유족및참렬자들의옥관봉전(玉串奉奠)이 잇고서 의장병(儀仗兵)으로부터 경례와조총제발(弔銃齊發)을 한뒤에 고별식위원장 송포중좌(松浦中佐)의 인사가 잇고서 오후세시반에엄숙히식을 마첫다 그러고 이영령들의 유골은이날오후 여덜시이십분에 룡산역을떠나는 남행렬차로 유족에게 바뜰려 각기고향으로 도라가게되엿다 (사진은 고별식장파제단)

金村驛前에本據둔 紙幣僞造團捕盡

嫌疑者取調로事件全貌綻露

首魁는前科六犯惡黨

기보=룡산방면에서 위조지페 십원권 일원권을 제작중이라는 지페위조단이 잇다하야 혐의자 일명을 체포한후 룡산서형사대는 그들의근거지를 차지려고협안활동중이라함은 기보하엿거니와 금일에이르러 지페위조단의 소행인것이 확실해젓스며 위조지페십원권 일만매 일원권오천매를 제작준비중의 근거지를탐색한결과 그들은 전과륙범 고영근(高永根)(三七)이주범이되여 미모의중년녀자까지 끼인삼인조일당을 검거하엿다 그들은부내 대현정(大峴町)삼십팔번지에사는전과 륙범 고영근(高永根)(三七)과 그의첩 량원희(梁元熙)(二四)와 가튼마을에사는 전과이범심상옥(沈相玉)(二四)등세사람인데 지페위조소행의 전모와 룡산서에서 증거품과함께 일당을 타진한내용은 다음과 갓다 전기 고영근은 소화십년가을에 부내팔판정(八判町)에사는 의생(醫生)김석윤(金錫允)을 리용하야 지페를 위조인쇄할줄 안다고 자본을 대라고 하야 수천원을 편취해먹다가 범망에 걸리게되여 이래 경성형무소에서 복역중지난 구월사일에 형무소를나왓스나 배운재조는 지페위조인지라 곳 그는 위조지페에사용하는약품『카루손앤』『오시풀』『표백제』『고발트』『크로리-드』등과 부내 남대문(南大門)안 조히전에서 서양지(西洋紙)열단을 사가지고부내아현정(阿峴町)에 잇는 모인쇄소에가서 일원지폐형으로 또 십원지페형으로 재단하야가지고 룡산서원이 수상하게알게되여그들의 행방을 추궁중 그들은 상의물품을 사가지고 금촌역전(金村驛前)에 근거지를두고 채색(彩色)연구를 하는일방 인쇄기구를 준비하고인쇄기계를 사드리려다가 미연에발각된것이라는데 그들의 형적에따라 그배후에는 거액의피해를밧고도 말치도 못하는자와 또 공범이 잇슬것이라하야 동서에서는 취조하는일방 게속여당을 탐색중이다

阿片도密輸

지페위조단의 주범 전과륙범 고영근(高永根)은 도일방으로 다량의 아편밀수에 착수하야 천진(天津)부근각지를 무대로하고 인천(仁川)을경유하야 아편밀수를의선 오십원어치 하고 공범들에게 지휘중이라는데 아편밀수도미연에 중단될것이나 그의공범들이 각지에잇다 하야 동서에서는 게속맹활동중이다

靑年飮毒

삼십일오후 여섯시경부내효의정(孝義町)백십팔번지합 재등(咸在源)(二二)은 칼모친을만히 마시고 자살을 도모하야생명이 위독하다 원인은 생활난인듯하다

十萬圓土地詐欺

약속수형으로연극꾸미다실패

詐欺僞證罪로送局

시가십만원의 전답을사고 대금지불중 이만원을 약속수형으로 지출하얏다가 이것이 부도가되자 매주(賣主)가 그수형을도로 밧고 지불도안한 이만원을 매주(賣主)에게 전달하얏다고법관에게까지 허위진술을한후 이사실이 본정서에탄로되여 드듸어 사기죄로 송국되게된자가 잇다

경기도고양군중면(高陽郡中面)에 사는 최형순(崔亨淳)이라는 부호는 작년시월중순 그의 소유로잇는 황해도 서흥군 화회면(黃海道瑞興郡木面)에잇는 전답삼만구천평을 부내 어성정(御成町)사는 우전(羽田)에게 구만구천팔백원에 팔고 대금중에서 이만원은 약속수형을 바덧든바 그후 이것이 부도가되여 최가 우전에게반환하엿다 그후우전은 약속수형이 자기손에 드러온것을기회로 지불안한 이만원을지불하얏다고 주장하야 경성지방법원민사정에서는 재판관에게 허위진술까지 하엿는데 그후본정서에서 지불하얏다는 이만원의출처를 추궁하는일방 증거수집에 노력하든중 최근에 이러 우전이가 이만원을 지불하얏다는것은 빨간거짓말이요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엿다는것도 자백하야 삼십일 일건서류와함께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국하게되엿다한다

長津江水電 京城에送電

送電線四百키로!

장진강수력발전소(長津江水力發電所)로부터 경성까지의 연장 실로 사백『키로』나되는 송전선(送電線)가설공사는 요사히 완성되엿스므로 십이월일일부터 송전을 시작하기로 되엿다 이송전선은 십오만사천『볼트』로 전일본에서 제일노픈 고압선(高壓線)이며 그연장도 이대판(大阪) 사이의 사백오십『키로』를 훨신지나가는 제일긴송전선으로 이날부터 경성에공급하든 전력은 화력(火力)으로부터 이수력으로 모두 밧구이게 되는세음이다

天氣豫報

豫報 京城方地의今夜는 曇 小雨模樣 明日은 개엿다흐렷다하겟다 京畿道全區도 同一하다

昨日 最高 六度一
同 最低 零下三度四
今朝 最低 ○度三
今日 正午 四度七

明日은防火데ー

祈願祭、各種宣傳街頭行進等

民衆의注意를喚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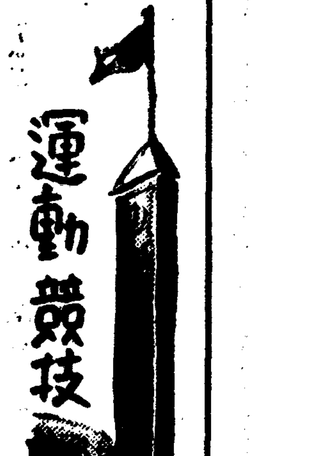
내무성(內務省) 대일본소방협회(大日本消防協會)주최의방화『데ー』는 십이월일일 전국이일제히거행하게되엿는데 금년은 특히총후의수호를견고히 한다는의미에서 국가총동원으로중앙련맹(中央聯盟)도 참가함으로 이에호응하야 조선소방협회에서도 조선이일제히 방화선전행사를 실시하게되엿다 그날은각지소방조에서령지(令旨)봉독 국방금모금 헌기원제 강중선전 소방자동차에의한 가두행진등을 행하야 일반민중에게 불조심을 철저히하도록 할터이라고한다 (사진은 경성소방서 조망탑의 선전탑)

阿峴町에棄兒

이십구일 오후 아홉시반쯤 부내 아현정(阿峴町)팔십오번지의 십구호에 사는 정귀남(鄭貴男)(二〇)이의집 대문안에 생후십일쯤 되는영아가 버려저잇는것을 발견하고곳 소관서에 알리엿다 동서에서는 어린아이 버린사람을 엄탐중이다

和信連鎖店聯合 景品附歲暮大賣出

화신련쇄점총본영인 경성화신련쇄점주식회사(和信連鎖店株式會社)에서는 화신련쇄점총동원으로 금년세모를 기하야 고객에게 봉사코자 전조선화신련쇄점련합경품부세모대매출을 십이월십일부터 동말일까지 이십팔일간 개최하기로 되엿다는데 경품은 특등부터 등외까지 공혜이 업다한다



YMCA主催第11回 青年團籠球리그

延長戰은來月二、四兩日에擧行

明一日밤부터五日間

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의 第十一回籠球聯盟靑年團籠球戰은 明一日부터 五日間에亘하야 每夜六時半부터 鍾路靑年會室內『코ー트』에서 擧行하기로되엿다 今番부터 第一部에 延專、普專과 第二部에 高麗、씽거、스파르타、타이거、白燕、佛專등部에 나노아行할터인데 同靑年團의 對陣과日字은다음과갓다 그리고當日 入場式은 午後六時二十分에 行할터이며 場內整理費로 十錢式을밧기로되엿다한다

日字	時間(六時半)	(七時廿分)	(八時十分)	(九時)
1日(水)	佛專…타이거	씽거…高麗	스俱…白燕	
2日(木)	씽거…스俱	普專…延專	타이거…白燕	佛專…高麗
3日(金)	高麗…白燕	佛專…씽거	타이거…스俱	
4日(土)	佛專…스俱	延專…普專	타이거…高麗	白燕…씽거
6日(月)	타이거…씽거	佛專…白燕	高麗…스俱	

웰터ー級覇者는 左龍振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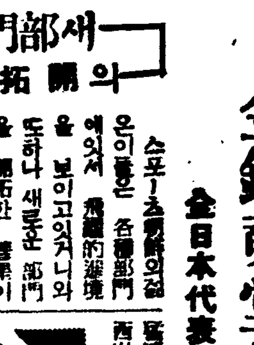
濟州島出生의新進

지난二十八日 阪神甲子園에서열린 全日本選手權大會兼比島遠征派遣選手詮衡大會에서 關東代表 ■■■(法大)를判定으로 이겨서 웰터ー級의 選手權을獲得한 朝鮮出身의 左龍振君은 濟州島出生으로 大日本拳鬪會大阪支部所屬選手인데 이번關西代表로 出戰하엿든 新進選手이다

레스링界의彗星 金鍾奭堂堂優勝

全日本代表로서比島에遠征

새部門의開拓者



스포ー츠朝鮮의躍進은 各種部門에잇서 飛躍的進境을 보이고잇거니와 또하나 새로운 部門을 開拓한 喜果이 잇다 지난廿七、八兩日間 大阪市土佐堀YMCA體育館에서열린 第四回全日本아마튜어레스링選手權大會에單身出場한 金鍾奭(二三)君은 라이트級에잇서서 ■■(東大)를 破揮하야 藤間(慶大) 西出(早大) 猪狩(早大)等 내로라고뽐내는 一流名將들을 물리치고 堂堂히 優勝하야 大會의 優勝權을 獲得하엿다 金君은 現在明大專門部商科三學年에在學中인데 昭和十一年度에는 全日本레스링 라이트級 新人選手權을 獲得한 經歷이잇스며 朝鮮出身으로 全日本레스링選手權을 獲得하기는 金君으로써 嚆矢이다 金君은 十二月中旬에 全日本代表로 比島에遠征하기로되엿다 (寫眞은金鍾奭君)

註=『레스링』은簡單히紹介하면 씨름과비슷한競技임으로 俗稱『西洋씨름』이라고도하나 도리여柔道와恰似한點이만타 씨름은 넘어가면勝負가決定되나 레스링은 相對者의兩肩을同時에『매트』에닷게함으로써 勝負를決한다 그리고體重에따라 競技者는 體重別로 ■級(五六瓩)으로부터 헤비ー級(八七瓩)까지七級에 나노아行한다 古代希臘、羅馬時代부터의 競技인데 歐米各國에서 盛行한다 技術에잇서서는『스탠딩·레스링』(立技)과『그라운드·레스링』(寢技)이잇다 競技時間은十六分間이다

不良輩排除의 渡航事務所開設

保護指導·就職斡旋

도항의목적으로 부산(釜山)에 와서잇는 조선인로동자중에는도항수속과 부산지방이 생소하기때문에 악질인개군、불량배등의 감언리설에 우롱되어 그동안에 수수료、식비등의 명목으로 소지금을 전부소비하는 사실이십히만흔데 그중에는 불량배의장중에빠저서 결국은 귀향할려비까지 업서서 구제를 애원하는자도잇스므로 이번에부산에 도항사무소를 설치하고 십이월십일부터도항자 또는상륙자를일시수용하야 도항가능자에 대하야는일제의수속을하야 주는동시에 일본내지사정과 도항후의각오등을설명하고 또그럿치못한사람에 대하야는 귀향조치、로동알선등을하야 이들도항자에대하야 도항제한에따르는 제반랑해를 식혀서 구제의완벽을 기하기로되엿다

拳鬪選手一行 來二日朝에歸京

全日本아마튜어拳鬪選手權兼比島派遣選手豫選戰에 出場하엿든 全朝鮮아마튜어拳鬪聯盟所屬選手 宋孝鏞(朝拳) 文春成(光州) 金永福(朝拳)三選手는 十二月二日午前八時 京城驛着列車로歸京할터이라한다

世界의자랑

非常時代는健康이第一必要

天下의補藥中 百補丸갓치 몸에利한藥이다시업습니다
陽氣·精神·氣血·胃腸等이모다 조와지고、食事가倍加됩니다

▲病弱人은疾病治療劑로
▲氣血虛弱人은補血强壯劑로
▲陽氣不足人은精力補給劑로
▲中年人은老衰防止更少年劑로
▲藥效信用天下第一!

漢方호루몬强壯劑

一、近來盛히 떠드는 호루몬劑도 漢方에서는 벌서 一千餘年前부터 使用해온것입니다
二、百補丸에 含有한 호루몬은 實로 高貴玄妙한 性質이잇습니다 百補丸은 實로 累試累驗의 名藥인故로 絶對自信을 가지고 藥效를天下에 推奬합니다
三、元氣不足、陽氣不足、胃腸衰弱、消化不良、神經衰弱、不眠症、貧血症、肺弱、疲勞、盜汗、營養障碍等에는 唯一한 多元性治療强壯劑입니다 病과虛弱으로 걱정말고 至今 곳 百補丸을服用하시요

▲補藥은漢藥이第一 (朝鮮人體質에잘맛고 效力깁고永久합니다)

高貴漢方

神人道師 葛玄眞人 의秘方藥

百補丸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

虛弱이過度하면 百藥이無效한法

不治의難病도小小한 虛弱으로부터始作!

체증을 根治하려면

消化劑를쓰지말고 健脾强胃劑를쓰시요

●百補丸은健脾健胃作用이强大함으로 年久체증이떠러지고 氣血이旺盛하고 陽氣가大旺되고 筋骨이튼튼하여짐으로 一擧兩得이됩니다
●체증에對하야 一時的病者의好感을주기爲하야 消化劑를大大的으로宣傳販賣하는곳도數多하나 此等消化劑로체증이根治되엿다는말을드르신이는 드물것입니다
●百補丸은健脾消化의二重作用을함으로 체증消化不良을根本的으로 고치랴면 百補丸을쓰는것이第一 完全합니다

百補丸의效力은 어러케광장합니다

一、氣血이俱衰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참혹하고

生男生女·天下待望의世界的名藥

高貴漢方 婦人百補丸 發賣開始

價 百補丸 一劑 特價 … 婦人百補丸 一劑 特價 …

無料進呈

京城府堅志町五、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光六三二番·三三〇番·振替五番

自十二月三日
至十二月三十一日

和

壹圓어치물건사시면소한마리!

年末年始用品과
贈答品을豐富이具備하고
大廉價로提供

景品附 全朝鮮和信連鎖店聯合 歲暮大賣出

景品種目

特等	十五本	牛一頭、洋服欌一台 飾付二層衣欌一組、中一品進呈
一等	三〇本	크로무側腕時計、白銅盤床器、羅紗毛布二枚續、乳母車、衣欌中一品進呈
二等	七五本	卓上時計、萬年筆、手提金庫、毛內衣上下、中一品進呈
三等	一五〇本	茶盆、スキ燒鍋、毛內衣上、綿內衣上下、和信石鹼、中一品進呈
四等	三〇〇本	洋襪、針箱、알범、샤푸펜실、中一品進呈
五等	四五〇本	卓上鏡、알범、샤푸펜실中一品進呈
等外	全部	石鹼、便箋、半月、타와시、杓子、鉛筆、캬라멜中一品進呈

以上景品本數外에景品券 二萬枚追加마다 特等一本・一等二本・二等五本・三等十本・四等二十本 五等三十本・等外二萬本・을追加함

景品進呈方法

△一般雜貨는 金壹圓 布木及特價品은 金貳圓買上마다 景品券一枚及等外景品無漏進呈

△一般雜貨는 貳拾錢布木及特價品은 四拾錢買上마다 補助券一枚進呈

△補助券五枚와 景品券一枚及等外景品交換進呈

△景品券抽籤은 一月六日 京城本社에서 行하야 各日刊新聞及全鮮連鎖店頭에揭示發表함

△其他景品에對한 仔細한것은 貴地連鎖店에問議할것

매일쓰실물건은 가장염가로파는 여러분의全鮮和信連鎖店으로

家庭

결혼을앞둔처녀의 걸리기 쉬운 불안신경증

신부에게만흔정신이상과히스테리ー

결혼전후의녀성생리학

가을이나 겨울은 결혼씨ー즌. 그리하야 인생초대의 축전인 결혼으로부터 정말 질거운이생애로를 출발한신호부인들은 이결혼을계기로 하야 가저오는 육체와정신의자극 좌우간 여러가지로 이야기거리가 만히되는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랑에대한 체면과 주의의사람에게 말할수 업는것이라하야 정신과육체의변화를 자신이뚜렷시아라채리고도 그냥두어서 나중에는 불치의고질을 만드러버리며 또는 대수롭지도안흔것을두고 혼자서 애를태우는수가만흐므로 결혼전으로부터 결혼후의 인처(人妻)로서의 생리상주의해야할 몃가지를 드러볼가합니다.

위선 혼기를아페다둔 처녀들에게 의외로 만흔것이 불안신경증(不安神經症)이라는 신경쇠약가튼 병인데실제로는 훌륭한 한사람의녀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자신의 자기의자격을 의심하며 무엇인지 모르게 작고무서워지며 불안에 사로잡히며 아모런 협질도업는데 자기의 순결한 처녀성을의심한다든이가 만습니다

실상서푼이나 잡지의 "엇지하리까"의 질문은 대개이러한 ●경쇠약환자의 투서가 대부분입니다.

이병의 치료법은 별것이 업습니다 그저뎌처오고야말 그날-질거운 결혼을 하고나며 물에씻친버리듯이 낫고마는것입니다.

그다음은 결혼이후의 이야기로 옴겨가겟습니다

결혼후에 조혼경향이사람은작고만살이쩌서뚱뚱해지는것입니다 일반으로 결혼하고나면 어린맘이 업서지고 어른이되며 부인태가납니다 한두달동안 살판이나 체중이부럿다고 동무생들에게자랑편지를 하는사람도 잇습니다

사실 규칙잇는 성생활을 계속하면 피하지방이 만허지고 살결이윤택해지며 선이고와저서 신진대사가잘되는결과임으로 조금도걱정할것은 업습니다. 걱정은 커녀생활이순조롭히 진행하는증거라고 아십시요

결혼전까지는 월경이곤난하다가도 결혼후에는 이상하게도 나허버리는분이만습니다

그러나 이와반대로 결혼후에 갑작히 야위여지는사람이잇습니다

이것은 조혼경향이아닙니다 무엇이던지 거기에는리유가잇서야할것이므로 조용히반성하야 적당한처치를강구하지안흐면 안됩니다. 위선제일먼저 생각할것은 부절제한생활로 이결과는부인보도 차라리남편에게 더 만히 현저하게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생각할것은 신부와신랑의체질문제입니다. 다혈질인남자와 신경질인 녀자의배합은 흔히조치못한결과를 가저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사자간의일이안이오 당사자 이외의가령신부가 시집의가족의사람들의대접과 새로운생활의변화의번거로움을 참지못하야 심신이 쇠약해지고 피로를느기게되는데 이때는신부한사람의 부담으로 하지말고 신랑되는사람도잘생각하야 적당한처치를하며 정신적으로라도 격려하며 도와가지안흐면 안됩니다.

마즈막으로 말슴드릴것은 표면에나타나지안코 잇는병이결혼으로 말미아마 표면화하는결과 드듸어 쇠약해지고마는것이 잇습니다.

이조혼의 병에제일만흔것이 결핵입니다 처음부터 결혼할때는 물론 결혼을 제한할것이나 결혼후이니 이것은 의사와 상의하야만전의처치를 숙히하지안흐면안됩니다

결혼후에도 심장병이라던지 신장병이잇스나 이러한병은 더욱임신과분만중에악화되기쉬우며 생명에관계가 큰것입니다.

이밧게도 조심해야 할것은 결혼후의 히스테리ー나 정신이상 짜증가튼것입니다

이것은 조고만한 실책으로 말미아마 완전한 사람이될수잇는것을 영영폐인으로 만드러버리기쉬우니 신부자신도 주의하려니와 근친자의격별한 조심이 잇서야겟습니다

주머니를노리는 스리를조심!

따르기쉬운경우와장소

모든사람이 주의를하고당국의 경계가 엄격해짐을따라서『스리』피해는 해마다줄어드는 형편이나 그래도녀름을 당하야 여전히 횡행할것입니다

스리가 제일잘털는데는전차안입니다.

신문파잡지를 펴서들고경신여서 읽는사람이 피해를만히입습니다.

그리고 양복바지의 뒤포켓이녀혼 지갑이나 물건이제일스리의 눈총을받고 잇다는것을 이저서는 안됩니다.

그다음에는 극장가튼 곳에다 스리가 만흘텐데니다.

여기에서는 관객이 모두 연극이나 활동사진에 눈이 팔리고 정신이어서 안젓스므로 제일피해를 입기쉽습니다.

극장에 드러갈때 스리범인은 그냥오경하려 만연히 드러가는게아니라 아조맛갓표파는데서부터 스리할 계획을 세우고 한사람의 목표를 세워서 따라드러가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내고 담배를녀코하는 주머니의 구멍을 자세히알고 잇스므로도넛는지갑은 아주단속단속해야합니다.

서로밀고들어갈때나 나올때가 그들스리의조흔기회인것도 이저서는 안됩니다

주머니에 그냥돈을너허가지고 다니는것은 요사히사람들의통습인데 이것은 스리맛기쉽도록된것에 지나지못합니다. 야시장가티복잡한곳에도 상당한주의가잇서야합니다.

물건을 사노라고 지갑을내여들때 당신의주위에는스리의수만흔 눈초리가 지갑에 집중되고잇다는것을 잇지말도록 하십시요

백화점도 스리의 만히다니는곳입니다.

매장에서 매장으로 도라단일때 그때마다 한번씩 녯던지갑을 속기괴너키는 대다히귀찬흔일입니다.

이러한데서 탈이납니다 아무리귀치안터라도 번번히지갑을조심 하십시요

그저 다음으로 다음으로 물건들을든데만 정신이팔리는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밧게도 기차안가튼데서양복웃저고리를 버서서걸고 그냥 잠만자는것은 대단히위험합니다 그리고 정거장에서 표를사고 시간이바쁘다하야 지갑가튼것을 아무러케나 겻주머니에너흔 다음다른짐들을할때도 피해당하기쉬운때입니다.

섯미가 조급하거나 칠칠지못할때 그저바쁘게 서드는것은 스리맛게조흔조건을만드는것입니다.

(사진은 극장앞)

무쇠머리

미국 뉴ー자ー시주의 베루ー노라는곳에서 이러난 거짓말가튼 참말이야기가 잇습니다.

삼뷰엘이라는사람은 쓰레기통소제부엿습니다

쓰레기를 산데미처럼 실고가는 화물자동차에 치여버리엿습니다 여러사람들은 삼뷰엘은 가엽시 죽엇스리라하고모여드럿습니다

이상하게도 삼뷰엘은 조금도상한데가업시 자동차뒤바퀴를 이러안저 잇섯습니다

머리가 바퀴미트로 드러가기는하엿스나 깨어지지안헛다고합니다 병원에가서 진찰을 바처보앗스나 조금도 상한데가 업섯습니다

커피차이야기 (二)

도취의선경에인도하는 야릇한향기의정체

빗갈과향기와맛과기분은 차당이말하는네가지요소

커피를 림상치요(臨床治療)에 사용한례가잇습니다

이것은 서양서의이야기인데 장질부사환자에게 매일아침식사전에 설탕과밀크를 넛치안흔블락커피를 크다란컵으로한잔식먹엿더니 조금도 원기를일허버리지안코 정신도 늘상쾌하야 치료의목적을 단시일로단축시키는효과를어덧습니다

또한 일본커피협회회장인 대석칠지조(大石七之助)씨는일마전에 위독한환자에게 시험삼아 커피차를 마시게하얏더니 혈색이조와저서 기사회생한일이잇다고합니다

좌우간 한잔의커피가 우리를얼마나 위로해주는것입니까 다만무엇인지모르고 그저이저지지안흔 그향기와맛이 문제가안이라 실지의 생리적효과가 이러한것이니……

그런데 커피는 유감이나마열대지방에서만 산출하는것이므로 우리는 엇더케하더라도 외국으로부터 이것을 수입하지안흐면 안되게운명이지워저잇습니다

작년의 대장성통계에의하면 작년내에 일본에드러온 커피는 약십만가마니——이것의갑이사백만원이라고하얏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말미암아여러가지 수입에지장이 생겻스므로 커피갑이올넛고 품부족(品不足)을고하게되엿슴니다.

이것을 보충하고 해결하는것은 사람의지혜에 맛겨진것입니다 엇더케하면 적은물건을가지고 가장효과적으로 리용할수잇는가가 문제입니다.

위선커피마시는법을 이야기하겟습니다.

커피를 감정할때는 제일빗갈, 제이 향기, 제삼 맛, 제사 마신뒤에맛는상쾌한 감정입니다.

처음맛갈이야기인데 호흑한것은 문제도 안됩니다 아모리 진하여도 호박처럼 컵밋바닥까지 투명하지안해서는 안됩니다.

커피당의 커피빗갈은 이또한 무엇이라고 표현하기어려운 윤기가잇고 연한맛이잇스며 칙칙한 고동색——이러한빗갈은 다른데서 조금보기힘들겟니다.

거리의 찻집에서 블럭으로하지안흔데 밀크를 너허주고 생크림을 커피우에다가 부어서 거품을내는것은 커피의생명인빗갈을 전연파괴시키며무시한것이므로 커피를안다는장사치로서는 무릇천치에가까운 일이라고하지안흘수업습니다.

커피를 마시기위하야 밀크와 크림——그리고 모당(角砂糖)이반듯이 필요하다는법은업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에서 마신다하더라도 손님의각각맛에따라서 자유로하도록 맛겨주지안흐면안됩니다.

녀학교에서 가사선생이가르쳐주신 엣날 커피다리는법을그냥 사신년대의 지금에쓰다가는 실수하기쉽습니다

더욱여기서 따라말슴할것은 커피잔——다시말하면커피잔은 갑시비싸고 단장이 호화롭다고 반듯이 조흔것이 안입니다.

커피빗과 그리고 여름과겨울을 볼꽈 가을에 따라서는물론 그장소와의 조화를 이질수 업는것입니다.

대개는 순백한것이 치패는격입니다 그럼으로 가정에서는 커피를 마시기위한 차ー를외순비가 업슬터이니 그저 순백하고 고결해 보이는것을 쓰면 될것입니다.

그리하야 네가지의 커피소것에 최대한의 조화를 살릴수잇는것——이것을 이저서는 안될니다.

그다음으로는 향기인데 이려한명제인는 향기의 정체는 무엇인가를 충분히 인식하지안코는 커피의 올흔맛을 가지도록 만들기는어렵습니다

커피콩은 섬마ー센테이지로부터 신오마ー센테리이의 지방질(脂肪質)이 드러잇습니다 이것을 복그므로서 화발성의 방향유(芳香油)에 변화시켜서 그독특한 향기가 나는것인데 생콩은 불쾌한 향기가나나 한번볶은것은 이상하게도조흔향기를풍는것입니다

따라서 복근지얼마되지안흔 커피가 조타하는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휘발성의 방향유가 대량으로 들어잇는까닭입니다 이것을갈면 그발산하는면적이 넓어지므로 갑작히 줄어지는듯한 향기가납니다

이휘발성의 방향유를 될수잇는대로 발산시키지말고 커피용액속에 체류(滯留)시키지안흐면 커피본래의향기를 맛볼수업는것입니다.

처음 커피잔을드자 그빗갈에반하고 코끄테 갓가워지면 향기에도취되는것입니다

향기도 맛의일부분이라고볼수잇스니 이만치향기를존중할것입니다

향기가업는것은 이번향의이동방법(移動方法)이 서투른까닭입니다.

그리고 향기가업는게안이라 불쾌한향기가 나는것을 마시게되는것은 숙한향유의 휘발성향기만 남아잇는때문입니다

차집에서나 가정에서볼수잇는 커피거르는 네루주머니는 처음한두번은 조흐나 오래쓰면 기름이 주머니에 부터서잘지지안습니다 그것을 그냥두고 다음에사용하므로 커피의생명이라고하는 방향은 남어잇고 기름내새만옴겨 오게되는것입니다.

또 한가지원인은 리상적으로 커피향기가 커피액체가운데 옴겨와다하더라도 차집가튼데서는 언제든지 곳 더운커피를 내여 노흐랴고『커피안』이라는 기계로 늘다려서찌게되므로 귀중한 방향이남어잇지못하게됩니다.

묘법은업슬가 빨내는큰일

두다려빠는것은감을망치니 편리한그릇으로주물러빨자

빨래는 중요한 가사의하나입니다. 주부의 생활을합리화시키는것으로 보아서 잘문시간에 가장간편하게하며 피로를 더러야 할뿐아니라 한꺼번에 분량을 만히할수잇도록 연구해보는것도 조흡니다.

이러하게 합리적인 빨래를하는데는 무엇보다도 기구가 충분하여야됩니다.

빨래통을 가젓습니까 재래로 쓰던나무통이나 요새새로나온 함석통이나 무엇이든지 빨래통이 잇서야합니다.

가볍고 편리한 점으로보아서는 함석통이 조키는하나 이것은 여러가지의 화학적작용을 하게되므로 재미롭지못합니다.

비누물이나 세탁약을 쓰면할적은 석어서 수선할수업게되고 붉은녹이나서 빨래감에 뭇게됩니다.

이러한편케로 빨래통은반듯이 나무통으로 선정하십시요.

나무통은 소나무 삼목(杉木)등이잇는데 삼목은 가볍고감시 헐하야조흡니다. 한개를가지고 정하게쓰면오륙년은아모걱정업슬겁니다.

나무살이 붉으스레하고엽퍼노코 두다리면 땡땡소리가나는것이 조흐며 오래쓸수잇게 금을마추어만든것입니다.

나무가 잘건조하지안흔것과 나무결이 히것은 곳쳐고깨여저 버립니다.

• 빨래솔은 이때까지의 조선빨래에는 쓰지안헛스나이것이잇스면 편리합니다.

더욱 치솔때빨래는 때가잘지지안흠므로 솔로쓰면 때가잘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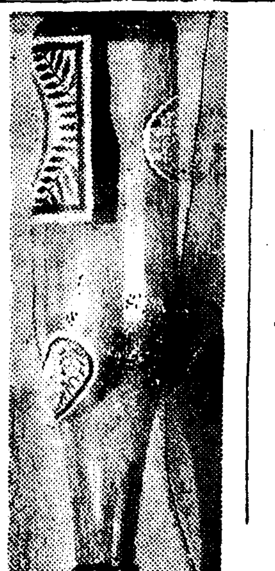
빨래솔은보통『라와시』라 하는것을 쓰는이가만흐나 인조견이나 모직에는 팔괴리로만는솔이 따로잇슴니다.

그리고 명주가튼것은 종려(棕櫚)나무솔을써야합니다.

털이 고르게굽고 기리는이센치가량되는것이 조흔데 이상길면 털이잘빠지고 꺼구러저서조치못합니다 예날빨래처럼돌에언저노코 방맹이로 두다리는것은 옷감을 버리고 힘도 더듬으로가장불경제입니다.

음료수저장은 이러케할것

절대로상하지안허



가튼음료수라도 포도주라던지 시롭, 샴팡처럼 퀼크로서 병마개를한것을 보관할때는 반듯이 병을 꺼구로 세워두지안흐면 안된다는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보통제대로 세워두기보담은오래도록 석지안는 까닭입니다.

그리우는 퀼크는 여러분도잘아시다시피 보통 가는다란 기공(氣孔)이 만히잇습니다.

그래서 먼저말슴드린 음료수는 한번술은손독을하기는햇스나 한번떼엿다가 나종에 퀼크마개를 끼워서두게되므로 퀼크의기공으로부터 공기가 침입하고 그와동시에 공기가운데 세균이 침입하므로 그속에 드러잇는 음료수는 균의작용을바더서 자연발효(醱酵)하야 나중에는 석어버리게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꺼구로두면 속에드러잇는 액체가퀼크에대여지므로 퀼크는부러서기공이막혀지고 외기가침입하지안흐므로 석을려가업게됩니다.

이밧게도 물론온도와일광이 이것을발효시키는 작용을돕기는하나 이상의주의를가지고 일상과온도도 참작하도록 하십시요

보관하는장소는 될수잇는대로 차고 어두운곳에 두도록하십시요.

양철통석유냄새 빼는법

석유통이빈것을가지고 물통이나 기타그릇으로 쓰기는 편리하나 이놈의석유냄새가잘재입니다.

석유냄새빼는법을 아르켜드리지요

구할수잇는것으로 완전히 석유기름을 빼버리랴면 회발유나뻰지를 조금부어서 잘흔들어서 석유를업세버리고 양재물을 진하게개여서 통속에 너흔다음 이것도 잘흔드러서 유분(油分)을유화(乳化)시켜가지고 마즈막으로 물에다가 씨치면됩니다

그리고 오속장을 펜다음에는 잡돌부처서 통속에 태운다음 먼저와가티 양재물로씨치도록 하십시요

인공안구완성(人工眼球完成) 장님을곳친다

자기가 장님이아니라 하더라도 인류의행복에기여하는바가큰 이러한의학의연구에는 심신의경의를 표하게되는것입니다.

인공으로 장님의눈을새로만드러너허서 눈을뜨고 보는사람과가티 볼수잇다는것을 연구해낸사람이잇습니다

실명자의복음——시력회복수술의 창시자는 뉴욕의 콜럼비아 프레스피테리안메듸칼•센터ー의 안과연구소원라몬커스트로 비ー조박사로서 박사는 최근 수년동안실제의경험으로 연구를계속해왓습니다 그리하야 요지음이 뎃스므로 치카코의 미국의과대학에서 이것의보고강연을하엿습니다

그방법의 대요를 드러보면 각막편(角膜片)을 가지고 일종의장방형『창문』을 만드러서 이것을 실명한안구의 아메이식시키는것이다

이각막편의『창문』이완전히눈의 조직의 일부분으로화하면 감쪽가티 눈이보이게된다는것입니다.

이각막은 죽은지얼마되지안흔 인간의눈에서 따오는것이므로 박사는 이것을동물의눈에서 대신으로 빼서써보앗스나 조치못하며 또한 창문은 장방형이래야만 하는데 원형은 수술이오래걸인다고합니다

박사는 실명한장님을 사오인수술하야 완전히 성공하얏슴으로 이것은 백퍼ー센테지의 성적을가지고 근근실용의학에로 발전시키기로되엿다고합니다 (치카코발동맹통신)

다마네기회장

세계에서 제일『다마네기』를 잘먹는 민족은 유태인입니다. 그리하야 그유태인이제일 만히 사는곳은 미국 뉴ー욕이란 곳입니다. 이러한것을 알게되여서 곳『다마네기』장사를 시작하야 큰부자가 된사람이 잇습니다

자민•바리쓰씨라는 사람은 나이 열세살때『다마네기』장사를 시작하얏습니다. 그런데 아메서도 팔하야서니와 뉴ー욕에서는 어듸를가도『다마네기』를 잘먹는 유태인이 만헛슴으로 어떠케 잘팔리는지 정신을채릴여가가 업섯습니다

그래서 몃해동안 장사를한것이 그만부자가되고 맛침내 미국의『다마네기』회의회장이되엿습니다.

치차리우

꿀둑새

꿀둑새야
너의집은 어듸잇노
꿀둑뒤에 잇느냐
날개가 샛카맛케끄
렷구나
내하고 사이조케놀
라면
비누로 문질러씨처
추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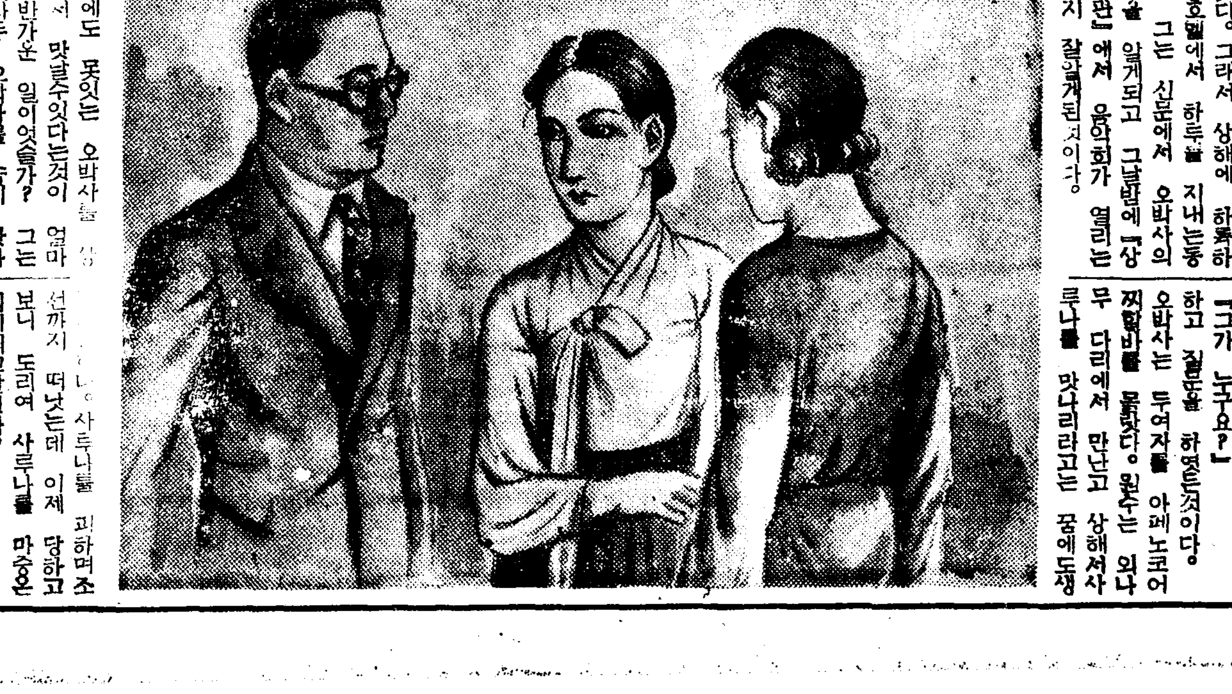
(사람 참 새)

中篇小說

人生特急 【48】

盧春城作 崔根培畵

脫出(二)



사루나는 예정보다 늦게 로마를 떠낫다. 몸이 좀 아파서 병상에 누어잇기두 하엿지만은 사실은 여러가지 준비에 시일이 걸렷다. 여차하면 오바사와 조선서 흥을 일우고 자미잇게 살려는 뱃장이라 요것저것 속속드리 준비를 하는것두 그무리는 아니엿다. 그는 나포리에서 배를타고 지중해를 지나고 홍해를넘고 인도양을 지나상해에 도착한것이다. 그는 이태리배를타고 상해에서는 다시 일본배를타고 조선으로 갈작정이엿다. 그래서 상해에 하룻밤 하여 호텔에서 하루를 지내는동안에 그는 신문에서 오바사의 소식을 알게되고 그날밤에『상해회관』에서 음악회가 열리는것까지 잘알게된것이다.

꿈에도 못잇는 오바사를 만나게 해서 맛날수잇다는것이 얼마나 반가운 일이엇슬가? 그는 한시라두 오바사를 속히 맛나고저 가슴을 조리엿다. 내가여기 오리라고 생각지안는 그가

『미스터, 오!』

하고 그의손을 잡으면 그가얼마나 나를 반가워할것인가? 그는 어린애가티 팔팔 뛰면서

『미스터오! 미스터오!』

하고 불러보앗다. 그는 그야말로 한시가 천추가티서 정각두 되기전에 벌서 회장으로 뛰여간것이다. 그의 오바사의 얼굴이 나타나고 그의 노래가 불려나올때에 그는 반가움과 즐거움에 그만 눈에 눈물이 흘럿다 자기맘대로하면 자리에 일어서서

『미스터, 오! 사루나가와서요』

하고 단상으로 뛰여가고 시펏스나 그만 꼭꼭참고 회가 끗나기를 기다렷다. 그래서 회가 끗난후에 몰려드는군중에 석겨서

『미스터 오!』

하고 떨리는목소리로 오바사의 손을 잡엇든것이다.

『아, 사루나 이기 웬일이요?』

하고 오바사는 반가움과 놀람에 그만사루나를 쓸어안을줄 알엇스나 오바사의 태도는 이와는 전혀 반대엿다.

『아!』

하고 무슨 못볼것이나 본드시 놀리며 뒷거름을 치지안는가!

그리고 아무말이업시 석상처럼 서고잇지안흔가? 사루나는 실로 어이가 업섯다.

『왜그러세요. 놀리서요?』

하고 사루나는 또 말을 건늬엿스나

『네ー갑작이 당신을 뵈니까…』

하고 박사는 랭랭한 태도로우물쭈물하지안는가? 더욱이 아까 피아노를 반주하는 미모의 동양여자가 오바사의 여프로밧삭달려와 눈이 바늘갓가티 빠족해저가지고 오바사를 감시하는데에는 사루나도 몹시나 마무엇을 직감할수잇엇다. 사루나도 토명스럽게

『그가 누구요?』

하고 질문을 하엿든것이다.

오바사는 두여자를 아페노코어무 다리에서 만난고 상해서사찍할비를 몰랏다. 왼수는 외나루나를 맛나리라고는 꿈에도생[illegible] 사루나를 피하며조선까지 떠낫는데 이제 당하고보니 도리여 사루나를 마중온 셈이되고말엇다.

오바사는 영순이나 사루나나두 사랑중에 하나를 떼여버리지안흐면 아니되게되엿다. 그러나그것은 그러케 손쉬운일이 아니엇다. 두여자를 둘선이 아페세우고보니 가슴이 멍멍하엿다. 쥐구멍이라두 어데잇스면 그만숨어버리고 시픈생각이 아플서엇다.

『왜 저온것이 그러케 실허서요. 저는 바다건너 멧만리를 당신만을밋고 차저왓는데…』

『원 실키는요?』

『그럼 왜 그러케 이상하고찰쌀하서요』

『좀 흥분이되여서……』

박사는 또 우물쭈물하는수밧게는 아무것이업섯다 여기서 잘못하면 당장에 싸움이 일어날것을 짐작하는 까닭이엇다 그러나 영순도 지지안코

『여보서요 웬여자가 그리 말이 만소? 노상 테망까지하는눈치니 난 이태리말은 몰으지만……』

영순도 골이 좀 난모양이엿다

『뭐 별일은 업서요』

『별일이 업다니 뭔 어쩐영문인지』

영순은 혼자말비슷이 웨여 흔다놓듯이 혀를 채엿다.

學藝

李朝畫家誌
師任堂申氏 (三)
瀟岩

李上佐와 거의同時에 女流畫家로 一大異彩를 노흔 師任堂申氏가 잇스니 그는 巾幗의才媛일뿐이 아니라 有德人을 부끄럽게하든 二大名家이다.

師任堂은 才德이 兼備한 女中君子라 一技一能을 갓고 [illegible] 도리어 그高貴한 品格을 떠러친다고 할는지 모르되 오늘날眼目으로 보면 그러치 아니하니 [illegible] 所有한點에서 師任堂의 眞面目을 차즐 것이다.

누구나 아는바나 師任堂은 [illegible] 申命和의 둘재 따님으로 燕山 十年甲子에 生하야 明宗六年 辛亥에卒하니 그享年이 四十八이며 監察李元秀의 夫人이되어 名儒栗谷先生을 나핫다.

師任堂은 天才가 出衆하야 七歲부터 安堅의畫를 倣하야 山水와 [illegible]를그리엇 [illegible] 世間에能히 [illegible] 업섯다하며 山水와[illegible]의 絶妙함이 安堅에 다음간다한다. 이때까지 巨匠安堅의 畫가 盛行하야 畫家는 모다 이그를 본바덧스므로 師任堂도 [illegible] 山水畫가 얼마前까지 잇섯다하나 今日에는 볼수업고 李王家博物館에 現存한[illegible]와 [illegible]氏의 所有한 [illegible]는 그畫格이 高古하고도 [illegible]하야 [illegible] 여주며 [illegible]는 [illegible]에 어르러는 栗谷先生의 [illegible] 잇는 가 [illegible] 代表作으로 볼수 잇다.

[illegible] 女流畫家 五六人이 [illegible] 잇스니 그中에 [illegible] 官員 [illegible] 張氏이다. [illegible] 流詩人인 [illegible] 許氏이며 [illegible] 光海朝 安東張氏이다. 그手蹟中에 오늘날傳하는 것으로 말하면 秋蟲群 [illegible] 이니 거기는 宋尤庵의 跋 [illegible] 張氏는 敬堂興孝의 따님으로

[illegible] 花卉와 詩畫를 잘하는 一方에 [illegible] 能하야 花鳥를 잘그리고 더욱이 [illegible]에 長하엿다한다. 또한 [illegible] 즉 [illegible] 의 七代孫으로 [illegible] 絶妙하엿다하며 또한 [illegible] 正朝末 [illegible] 이니 그 [illegible] 의 姿으로 多才多能하야 [illegible]를 다잘 하엿다하며 또 妓流中에는 [illegible] 竹石을 잘하고 [illegible] 蘭을 잘햇다하며 그 同時에 [illegible] 이잇서 竹을 [illegible] 하엿스므로 當時에 [illegible] 으로 꼽앗다. 이러케 四君子 가튼것을 그리던 妓流까지들 추어 내다면 얼마던지잇겟스나 어쨋든지 女流畫家로만 하면 五百年間을 通하야 師任堂을 代表로 내세울수 밧게업다.

文化의 構造를 論述함
文明과 文化의 辨別點은 무엇?
(一) 徐寅植

朝鮮論壇에서도 한동안 文化問題가 論議된듯싶다. 文化란무엇이며 그의構造는어떠케생긴것인가? 나는 以下

文化

의性格構造를 大略 말하여보겟다. 만일 이곳에서말하는 文化의性格究明이 正當하다면 그는오늘날文化問題에對한 우리들의 態度決定에잇서서 一定한解答을 提供할것이다.

人類의歷史를 한낫의自然史的過程으로볼때에는 그는 곳 文明史的過程이나 그와反對로 한낫의社會史的過程으로 볼때에는 그는 곳 文化史的過程이라. 우리는 普通文明과文化 이두概念을 混同하여쓰지만 嚴密하게區別하면 文化의 自然史的側面이 文明이며 文明의 社會史的側面이 文化이다.

人類社會를 우리가 만일「콩트」와가티 人類一般 社會一般이란 普遍槪念밋헤서만 理解한다면 그곳에는 文明은 잇슬망정 文明과區別되는 意味에 잇서서의 文化는 업슬것이다. 그와反對로「딜타이」과가티 人類社會를 社會的構造의 相違에따라 諸種의 社會類型으로 區分

分類

하는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文化를 말할수잇다. 人類一般 社會一般이란것은 人類가 單純한 自然的存在로서 自然에만對立하여 잇는境遇에만 想像할수잇는 그自體가 한낫 矛盾되는 槪念이다. 自然的存在(存在一般)로서의 人類가 社會的存在로 限定되는境遇에는 늘 特殊人類 特殊社會(特殊存在)로 具現하는것이다.

어쨋던 文明은 人類一般 社會一般으로서의 人類의 合目的的行動의 産物이지만 文化란 人類一般 社會一般이 特殊人類 特殊社會로 限定되는境遇에 文明의 限定形態로 나타나는것이다.

人類의 社會生活은 무릇것업시 第一次的體制로서는 人間對自然의 物質代謝過程이다. 그리고 이第一次的體制로서의 社會生活은 人間의 自然에對한 支配能力이 增進함에 따라 發展하는것이다. 自然에對한 支配能力의 增進이란 量的으로는 自然과의 交涉範圍의擴大를 말하는것이며 質的으로는 自然의 利用

方法

의 合理化를 말하는것이다. 그리고이 곳에서 말하는自然이란 對自的인自然 即 勞動對象으로서의 自然만을 말하는것이 아니고 即自的인 自然 即勞動主體로서의 自然까지도 말하는것이다.

文明은 第二次的體制로서 社會關係가 떠데따라 特定한 經濟體制 政治體制 觀念體制로 限定되지안흘수업다. 다시 말하면 文明은 人類가人類로서 存續하는限 時空을超越하야 언제던잇는것이나 그는時空에서 限定된

過程

一般이아니라) 따라서 人類生活의第一次的體制에 對應하는 第二次的體制로서의 社會生活은 人間對人間의 物質分配過程이다. 物質生活資料(生産手段과生産物)分配體制는 近代社會의 그것과 그構造가갓지안타.

그럼으로 人類의 社會生活은 物質生産이 發達함에따라 地域에서 世界로 合理에서 非合理로 끄러어지며 發展하는것이다. 人類生活의 이發展이 잇는바文明이다. 그럼으로 文明은 人間對自然의物質代謝體制에 對應하는것이며 따라서 人類가 人類로서存續하는限 언제던 人類生活의 基底를 일우는 한낫의 自然史的過程이다.

그러나 人間對自然의 이러한物質代謝行動은 人間對人間의『社會關係一般』으로 遂行되는것이 아니라『特定한社會的關係』로서遂行되는것이다. 古代社會의 物質(生産手段과生産物)分配體制는 近代社會의 그것과 그構造가갓지안타.

一定한 社會形態미테서 具化하는것이다. 이리하야 一定한 社會形態에서 具化하여 나타난 文明의 一定한 歷史的形態가 우리가 말하는文化이다. 그럼으로 文化는 歷史上에 存在하는 各個의社會形態에 對應하는 한낫의 社會史的過程이다.

文明은 이와가티 限定以前의 것이며 文化는 限定以後의것이다. 文明은 限定以前의것임으로 同一性만가진 一般的抽象的의 것이나 文化는 限定以後의것임으로 同一性과 同一性까지도 가진 具體的個性的의것이다. 文化는 다름아닌 文明의 具體的限定이기때문에 一面에 잇서서는 文明으로서의 同一性을 가지는 것이나 그와는 一定한社會形態에 限定된것이기때문에 一面에 잇서서는 歷史로서의 具體性까지도 갓고잇는것이다. 文明을 떠나서 文化는 그 [illegible] 人間生活史의 [illegible] 을둘수잇다. [illegible] 文化를 [illegible] 文明을 생각할수업다.

詩情畵意 (二十六)
金壽長 詩 ／ 鄭歚 畫

神仙이 자최업스되 呂洞賓은 眞仙이레

朝游北海 暮蒼梧요 袖裏靑蛇 膽氣粗라

三入岳陽당재 사람이알리 업네

洞庭湖七百里平湖에 朗吟飛過하니라

隨想文……◇
窮巷點描
(一) 朴魯甲

원 서울의 쓰러기와 똥이 굴러 결국 떨어지는 곳이 동대문밧 용머리다.

이산 우에 고자리 끌듯 바이어 쇠죽 나무쪽 그릴듯한것을 후벼 파내는 여인네 아이들은 대개 바루 그엽 마을, 용머리에도 『빙축』이라는데 사는 이들이다.

크나큰 똥뭇 바루 여매 지질펀펀이 새파란 배추밧을 갈고 드러가는 나이 어린 시절, 이것이야 말로 이땅덩어리의 새로운 똥무 쓰러기산 방축 사람들 어외에는 그들

과 과히 멀리 살지 안는 광히문 밧 공이보람에 사는 그이들일것이다.

그들이 혹이 주시는것은 몰론 나무쪽이다. 쇠쪽은 쇠스금이 올은 요제옥, 양궤러 원구멍 문안 쓰러기통으로 동냥을 대고 다니는 친구가 더욱더욱 만코보니 족처럼 이 용머리까지는 나오기가 어려운 모양이였다.

쉬상 따지면 몃해 전만한대도 그들의 욕망은 그까짓 무쇠쪽에 그치는것은 아니엿다. 누런금쪽, 그러치는 못하대도 부면 오백만은 적어도 하루에

한쪽씩은 거어 어더 보아야만 쓰겟다는 것이엿다.

그러나 구수한 옛말을 하면 뭐할고! 오똥안은 쇠쪽은 고사하고 나무쪽이나마 한쪽 더 주엇스면하고 눈들을 희번득이는판이다.

그러면 이 나무쪽은 죽어다 무엇하느냐 하면, 땐다 혼자만 떼느냐고하면, 판다. 품거리 장작단처럼 단을 지어놀으면, 예서는 훌륭한 돈이 된다.

이 방축말 거리를 지나노라면 여기 저기 어린애 아람오로 한아람 될락말락하게 차힌 그것이 대게는 필러 내노흔것이다.

이것을 사 때는 사람은 또 누구냐 하면 그 역시 이 마을 사람으로 그네들은 재법 러 밧게 버리를 가지고 더 밧갓 도을 벌어 드리기는드리나 러 밧갓 장작은 사드릴수업는 형편에 잇는 이들이엿다.

가다가 뱃대기 허연 품거리 장작단이 대엿다직 어드 안호나, 이것을 재법 한단에 십전식 내고 사다 때는 집은 이백호가 넘는 이마을 안에 열손가락 다못 꼽을러이다.

아무러튼 세상에 제일 찬것을 그들은 세상에 요구 하나

러밧갓 세상은 솜처럼 그들의 요구를 드러줄 정성 조차 보이지 안햇다.

도온 사십삽전 박게 업는데 살은 회인 한되에 사십사전오 전한다. 돈은 십전박게 업는데 살은 식되 한되에십사전 오전한다.

전들이 들어온 뒤에야 벼로서 잘잘한 보송을 아람 갓득 안고 몽석께통으로 따로 떨어진 부럭에 갈찬침을 질러 나와 이가가 저가가 귀엿 기웃하는 것이 이 마을 안의 네들 대부분의 더밧갓세상과의 접촉이다.

집 실은 마차 겨우 통행할 만한 이마을의 거리는 떼노흔 독성이 우에 설치된것이다.

비 오면 진흙 개이면 몬지의 세상인길 양편으로 벗드러진 집들이 길을 우르러 입을 버리고잇다.

동편으로 벽에조히 한장 안부리고 흙으로만 주여 바른 가가 한간이 유독길로 불거저 눈에 띄인다.

이 가가의 전 주인은 예다 과자를 벌려노코 팔엇다 한다 사내는 나가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올것이요 가가를 날마다 지키는 사람은 필연 마누

라엿슬 것이다.

어 두사람 새에는 장래 그들의 대롱이을 대여서울 먹은 아들이 잇섯다. 그아까운 과자도 아깝잔케 주는게 그들의자미엿다.

마는우리는 이러케 지금 생 고생을 하지만 장래 저놈이나 커서 벌어 드리면 좀어떨는지 하든 여망조차 그들은 무참이도 끈코 팔엇다.

무 밋동 가리 자식이라고는 단지 그것하나 밧게 업든 것을 마자 에치워주어 버렷다.

生物學徒로서……◇
괴-테의 功蹟
⑥ 鄭槿陽

人類及象에잇서서 顯著하게 顯微鏡으로 觀察하여 [illegible]

「種子로부터 莖 葉에發達하기까지에 우리들은 한展伸을본다. 다음에 斂收에依하야 萼이생기고 다음 展伸에依하야 花瓣가 생기고 斂收에依하야 生殖器部가생긴다. 그리하야 偉大한展伸이 이러나 種子가생기고 큰集中에依하야 果實이생기고 此等 六回의過程에依하야 自然은 停止하는法업시 兩性에依한 植物의生殖이란 永遠한作業을完結하는것이다.」

그의 骨學을 土臺로한 比較解剖學의 主點은 全體에 通하는 理의 存在라는 意思이엿다 이意思은 그의 自然觀의 中心을일우고잇는 原基現象의 一表現이요 前記 原基植物과 同一한것이요 顎間骨을 發見한것도 이意思으로부터 出發하엿든것이다.

見한以外에 象에서 顎骨及鼻骨을 發見하엿다. 그의 原基現象의 意思은 生物界뿐만이아니라 無生物界의 認識에도 미처 鑛物界, 光彩現象에까지 適用하려고하엿다고한다.

그는 또 動物의 形態에잇서서 身體內의 要因과 體外의要因과의 協同을 생각하엿다. 即動物은 內在的要因에 依하야여러가지로 變化하라고하며 環境의 作用에 依하야 또한 變態에 影響을밧는것이다. 그는動物의形態를 目的論的으로 解釋하라는것 據人間的으로 解釋하라는데 反對하엿다. 例를들면『소(牛)는 뿔을 防禦하기爲하야뿔

이리하야 그는 環境을 注視하고 生物進化에對한 意想도가 젓엇다고 생각된다. 進化說에對하야『괴-테』가 어던한地位를 가젓는가는 疑問이로되 그가現代進化學的思想을 構成하게한諸研究者中의 著名한 戰士의 하나이엿다고는 할수잇슬것이다.

×

以上에서 우리는『괴-테』가 自然研究에잇서서 품엇든 槪念을 대강알수잇겟다. 그는 生物에잇서서 局部의相關의法則이存在한다는것을 認定하엿다. 即身體는 그諸部分 諸臟器 諸器官의 單純한 集合이아니요 其等相互間에는 不可分의 關聯이存在한다는것이다. 다시 어떤局部의 特殊한發達增殖을 爲하야서는 他局部의 減弱消失이 온다는것을 認定하엿다. 가장완全한 動物, 特히 人間의 價値는 各身體部分이 그身體全體에對하야 完全한 決定性을 가젓기때문에 생긴다. 모든 身體의部分은 規定된形態, 位置, 數量을가젓고 殺或 生命의 多樣한 活動에依하야 異例가생긴다 치드래도 그全體는 恒常 平衡狀態를 保持하고잇슬것이라고 생각하엿다.

이리하야 그는 部分과 全體와

反對하엿다.

그는 外界에對한 合目的性을 否認하는同時에 自己目的을 생각하엿다. 即生物은 自己로서目的을 가지는것이다. 自己目的을爲하야 生物은 自身의 內的完全性을 規定한다. 여기서 思考되는合目的性은 外在的인目的에適合한다는것이아니요, 外部에對하야 順應하는지나, 어되까지든지 內在的인 自己目的에 適合한다는것이다. 이러意味에서 그는合目的性을 是認하얏든것이다. 이것은『괴-테』以前에는 有機體를 主로目的論的으로 考察한데 비기면 卓見이 아닐수업다.

다음으로, 그의自然觀의中心이 原基現象이엿다는것을볼수잇겟다 如何히 植物이나 動物의 形態가 多樣할지라도 이것을 少數의 基本型으로돌릴수잇고 이것들의 形態變更에依하야 諸部分이 形成된다는 것이다. 植物에잇서서의 原基植物의 意想은 이槪念을 立證하기爲한 한개의 抽象 産物이엿다. ―了―

이생각은 더나아가 生物의形態를 目的論的으로 解釋하는데 役割을 다한다고 생각하엿다. 氣候, 地形, 濕度等이 普通空氣나水分의 影響에 지지안흘만한 環境의 偉大한힘을 認定하얏다.

現代人의 倫理的性格
倫理의두가지典型
⑥ 金午星

그러므로 近來에와서 우리 가 어떤사람을 가르처『저사람 倫理가 업다』라고 할때 그는 從來의 倫理的 範圍를 지키지 안는다는것을 意味함이아니고 그가 批判的精神을 缺如하고 잇음을 意味하고 잇는일이다 그러면 批判은 單純히 拒否가아니고 同時에 創造를 意味하는것이다. 批判意識이 倫理的인所以는 그것이 非人間的 强制를拒否하는 同時에 人間的인것을 肯定하는것임으로서이다. 倫理는 오직 常識的目的明性에 基礎를둔것이나 人間的

倫理의 압헤는 宗敎的自明性은 維持되지못한다. 웨―그러나하면 現實的으로 所與된 그어떤 規範도 이倫理의 압헤는 明證性을 가지지못하는까닭이다

어떤自明의 事理도 이批判의 압헤는 根據를 갓지못한다. 오직批判을 通하야 다시 檢討하며 새로운根據를 獲得함으로써만 다시말하면 人間으로 새로 創造되는데서만 倫理性을 獲得하는것이다. 그러면 創造는 뭇로수가 언시는 생각할수업다. 새로운것에 對한 憧憬 未來에의 渴求가 업시는 創造 될수잇슬것이나 未來에 對한 期待를 가지지못한다. 도그자倫理

다음으로 그는 生物에對한環境의 偉大한힘을 認定하얏다.

는오직現實에 執着하며 過去와 未來는 오직 現實을擁護하는데 서만 必要한것이나 人間的倫理에 잇서는, 現在는 超克되지안흐면 안될것이며 오직未來만이 그目標인것이다. 뮤토스의 精神은 未來에의 精神이다. 뮤토스는 現在에 살면서 現在를 超克하려는 精神이다. 그리하야 뮤토스는 未來를 實現키爲하야는 過去도 現在도 未來化시킨다. 뮤토스의 精神에서는 二千年前의 소크라테스가 수日의 理想主義보담 複雜하야 一일수도 잇다. 그러나 그것은 뮤토스는 오직 連續의 立場이 아니고 非連續의 立場에서인까닭이다. 이러한 · 뮤토스의 精神이 批判的意識과 結合되는데서 創造가 爲되는것이다. 今日의 倫理的行爲는『그것이善한것인가?』는『그것이 善한것인가?』 惡한것인가?』를 말함이 아니요 그 가 自己를 잘나타내는가?』못나타내엿는가?』에 잇다는것은새

러대超克하며 創造하는것, 이것은 非凡한 個性의일이며 英雄의 일이다. 그러므로 轉形期에 잇서는 英雄이, 對蹠되는것이며 그리하야 不斷히英雄을 지여내면서 잇는것이다. 人間的 倫理는 새로운 意味의 英雄主義의倫理라할수잇는것이다.

倫理는 行爲의 規範이다. 아니 本來에 잇서는 行爲와 規範이 둘이아니요 하나이엿다. 原始民들에게 잇서는 行爲그것이 곳 倫理的이엿섯다.

그들에게 잇서서는 生産하는것 즉 共同體를 爲하야 勞働하는것 즉 生産活動하는것이 倫理的 善이엿든것이다. 그러나 人間의 行爲에는 分裂이생겻다. 生産行爲의 박게 消費行爲가 생겻다 그리하야 消費行爲가 生産行爲의우에 君臨하게되엿스며 그것이 生産行爲를 强制하며 命令

가 生産行爲를 强制하며 命令

하게되엿다. 이러한 現實에 對한 屈服을 가지오 게하엿다.

처음에는 行爲그것이 倫理的이엿스나 이제와서는 倫理는 命令하는것으로 服從하는것으로 變하야 命令에 服從하는 行爲가 倫理的行爲는 그 消費行爲를 强制하며 行爲가 永續化시키게되엿다. 이러한 이 所謂『道德的社會』의 倫理는 實狀이러한 行爲關係의 所産인것이다. 社會의 均衡을 賴秉손이 말한 『固定되는社會』의 倫理는 이러한 生産行爲와 消費行爲의 關係의 均衡이 維持될때까지 行爲를 規定하는 生産行爲가 主體로 오는 倫理에 服從하는것을 自然의 命令이 一切의 倫理(倫理的)을 일우는 다 그러나 이러한 倫理는 社會에 一切의 道德的 普人이라고부르게된다. 그理由如何를 不問하고 道德的 責任은 人間에게 잇고 社會에 잇지안타. 오직人間의 現狀이 생겨지게된다. 그러므로 社會는 人間을 制하며 壓迫하지안흐면 安되는것이다. 이것이 道德的强制, 즉 規範的倫理의 正體이엿다.

그러나 이제와서는 行爲의 主體가 變하야 生産行爲가 그均衡을 喪失하게되엿다. 生産行爲는 消費行爲의 强制에서 벗어나려한다. 그것은 生産者의 生存이 維持할수업게 되엿슴으로서이다. 지금까지는 消費的行爲가 主體이엿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生産的 行爲가 主體가 되려한다. 지금까지는 社會가 主體가 主體요 人間은 客體이엿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人間이 社會에 對한 主體가되려한다. 여기서 倫理的關係는 轉倒하게된다.

僞裝의 科學評論
◇…其實리알리合에對한侮瀆
(一) 秦萬植

레알리슴의 美名을 冒瀆하야 僞瓦한文學의 理論을 展開하므로서 도리어 레알리슴을 害되게 하는者잇다.

寫實主義라고는 하면서 其實 自然主義의 末流를 蹂躪, 低級하고, 입으로 唯物論的方法을 念佛하는동안에 觀念論이란 自家陷穽의 진흙구렁에 轉落한 自稱『科學的評論家』金龍濟氏가바로 그분이다.

氏自身은 엥겔스의 首弟子인양 하는가보나 筆者 엥겔스 地下에서 喜泣하리라.

◇

어떤 特殊한地域의 歷史的諸事實에서어든바 한階級의 社會的範疇에다가 맞둥의 노-말한 人民의現實을 우구려너으려 한때에는 唯物論的方法은 그 고 한 엥겔스의規定을 귀에못 反對物인 觀念論에로 轉化된다 이배히소리다. 그러나 하는짓가 라서는 누구보다도 그걸 잘알 고잇서야할 金龍濟氏가 오히려

例의 선잠이 덜껜 탓인지 예 룬스트의『現行犯』을 再版하기 에 餘念이업스니 지섭로 보기 에도 민망하다.

特殊―勿論 아무리 特殊하다 고 하더래도 그것이 歷史的發展法則에서 벗어나는것은 絶對로 아니지만 그러나 (아니, 그러기때문에 더욱) 朝鮮의『朝鮮的』現實은 全然 獨自的포-즈 일것이 分明하다.

自體內에서 醱酵된 內部的條件보다도 外來의刺戟으로 因한 跛行的諸事實, 運命的으로 自擧性을 갖지못한『世界의一環』으로서의 受動的制約性 이러구러 歷史의 畸型兒임을 否認못하는 게 朝鮮의 正當한 特殊現實이 다.

그러므로 朝鮮의 이런 特殊現實은 筆者보다도 더 어려울 만치 노-말한 길을 걸어와다고 볼수잇는 東京文壇의 그것과는 절로 다를이 업지안할수가업다 하물며 印度하며 아프리카하며

그러것과도 또한 다르지 안치 못하다.

그러니까 그러하고 하더래도 朝鮮의 現實을 究明함에 잇서서는 唯物論的인 認識方法이例外이 必要하기는 한것이로되 어느 떤地域에서 어든바 範疇에다가 그걸 우구려너흘게이면 正當한 判斷과는 正反對의 結論을 엇고말게되는것이다.

헌데 金龍濟氏의 方法이 그러햇다. 氏는떤나라의『現在』를 參考삼어 東京文壇의 一그거나마 十六年前의 社會的 情勢를 基準해서『唯物論的方法』이라는데 의 紙型을 작만해다 이부작 방업이가튼 紙型을 짓떠지고氏 는 朝鮮의 獨自的이요 特殊한 그리고 더욱 丙子丁丑年의 現 段階的인 모든 군더데기를 잘 러바리고서 그紙型에 틀어맛도 록 朝鮮의現實을 裁斷해노앗다.

그러한結果 에初에도 몹시 鬪 實이엇는 그리고 그거나마 昨 수에는 某地誰也의『肯定的方面』이 는 당어서 아주 潑剌하고 積極 的이고 한大寫로서 登場햇다 그리고 오늘날의 現實인『否定的方面』은 一切 抹殺이 되어 바렷다.

이와가티 요란스런 그러나 貧弱한 人工的일류-숀에 지나지 못한 基礎우에 올라앉어 氏의 文學行動은 마츰내 소리를 외첫스니 曰 明朗한 現實이요 曰 樂觀的材料요 曰레알리슴의 勝利요 曰 健康한文學이요…等

(以上에서 내가『退嬰하 여잇는 肯定的方面』이라고 한 것은 그것의 消滅을 意味한것이아니요 또『오늘의 現實의否定的方面』이라고 한것은 歷史的發展過程으로서 明日에의 肯定을 內包한 相對的인 포-즈를 意味함이다)

◇

金龍濟氏는 그처럼 觀念論의 妖術을부려 朝鮮의 現實을 歪曲改變한『肯定的全面』의 豪華版을 만들어가지고, 文壇에 어둘어 大道商人과도가티 그걸 投賣진흥햇든것이다.

여기에 다시 推服할 紹介은 氏의『共犯者』들이 不肯햇든지『蹇秋』라가티『作品의 藝術的缺陷을 政治的暗示로 補充하려는 低級한』作品도 가물에 콩싸요 거의 全部가 文學보다가 말은 재질들이 氏의 그豪華版의 顧買者어들, 氏는 오히려 레알리

슴의 勝利라고 祝之禱之햇다는 것이다.

그러한다 하며 그거나마 절에 수에 고기맛을 보더니 절에 빈대가 엇저젓다는 俗談이잇다 金龍濟氏의 그대지도 동 떠

러진 文學音盲眼이야 빈대를 주리 잡어먹은 중의 食性이라 고나 할가 그 本色은 그리하 야 遺憾도업시 發揮되엿다.

―(계속)―

科學

戰時에 必需品인 火藥과 밋 爆藥
(上) 一記者

現今 重要火藥으로 使用되는 것은 피크린酸과 TNT다 피크 린酸이란 石炭酸을 硝酸으로 硝化하야서 맨든 트리니트로페놀 이라고 하는것인데 石炭酸은 석 을 가저 合成된것이요 또한 석 으로 크롬변을 맨들어서 硝 [illegible] 피크린酸을 製造할수도 잇 순속 피크린酸의 原料는 곳변

솔과 硝酸이나 硝酸으로 TNT는 톨 면 原은 트리니트로 톨루올이란것 이요 톨루올이나 石 炭의 乾餾에 依하야 생기는것 으로 瓦斯工業이나 코-스製造의 副生産物로서 생기는것인바 石 炭一噸에서 벤졸은 六百瓦 토 루올은 겨우百瓦밧게 더生産되

지안는 것으로서 石炭乾溜工業이 發達되지 안한나라에는 戰時爆 藥의 需要을 充分케 되지 못 하는 것이다. 지금 飛行機가 한 때의 爆彈을 投下한다고 하면 每 日 百噸이 나른다고 하면 每 日 百噸의 爆藥이 消費되며 거 기다가 피크린酸이나 TNT는 비단 飛行機의 投下爆彈으로만 쓰는것이 아니요 大砲나 迫擊 砲의 彈丸作藥으로도 使用되어 戰時에잇서 그消費量이 莫大할 것은 想像하기 어렵지 안타. 그러데 벤졸이나 토루올이나 또 그硝酸化合物이나 平時에는 染料 의原料로도 그 外에도 使用 되는것이니까 戰時에는 染料工 業이 動員되야가지서 爆藥의 半 成品을製造해내는 경우가 만타.

그래도 피크린酸이나 TNT 가 不足할때에는 硝酸暗의 代用 藥이 强力하겟지만은 爆力은 피 크린에 强大하더라도 比較이 적 고 保管이 가는 彈丸內에 裝塡 하는 分量이 減少됨으로 充分

한 威力을 내지 못 하게 된 다 지난번 歐洲戰爭에서는 T NT에 四〇―六〇퍼센트의 硝 酸암모니아를 混錬해가지고 아 마톨이라고 해서 多量으로 使 用햇는데 그런 混物은 比較이 用法이 까다로우나 過鹽酸 一·六倍되나 鹽酸加里나 過鹽酸 암모니아를 主로한 物質로 彈 藥은 投下爆彈인 彈丸作藥으로 서 比較이 不足한 까닭에 다른 用途에는 거 쓰지 못 한다

無煙火藥은 大砲나 小銃으로 부터 彈丸을 쏘아 내보내는데 使用하는 火藥으로서 이런 種 類의 火藥은 彈丸으로하야금 一 秒間 八〇〇米 乃至 一〇〇〇 米이라는 速度를 附與하고 또 그것을 數千米의 距離에 가서 命中시키려는 目的을 가지는 만 콤 火砲의 大小, 彈丸의 種類 形狀에 應하야 燃燒時間도 稱 整하고 그 藥形等의正確한 設 計도 要하고 또 그用途에 依 하야 形狀을 決定하여야 할것 이라 마치 세룰로이드製品과가

더 精密, 寬狀, 棒狀等 任意의 形狀으로 成形할수 잇는 可塑 的 物質이 아니면 안된다. 그래 서 現今 使用되고잇는 無煙火 藥은 綿火藥을 主成分으로 한 것을 다시 溶劑와 依히의 混和 液으로 膨軟化하고 또「풀」 이나『메려스』로 膨軟化하고 또 는 寬狀 板狀, 棒狀等의 形狀 으로 成形시키어 가지고 所望 의 기리로 切斷하야 乾燥하야溶 劑를 揮發시키는것이니 세룰로 이드製造의 거의同樣의 工程을 밟는것이다 다만 틀리는 點은 세룰로이드에서 樟腦가 勺 十퍼센트內外의 濃度를 갓고 그것이火砲의 彈室內에서 點火 火藥으로도 同樣으로 硬化하야 그 燃燒를 緩和시키는것 이다. 無煙 燃燒生된 高熱瓦斯의 膨脹으로 燃燒하는同時에 그 膨脹으로 因하야 彈丸에다가 數千氣壓의 壓力을 付與하야 가지고 그것 을砲口로부터 射出하는것이다.

文學의 깁히
尙壽施

한때에 우리는 文學의 넓히를 追求한적 이잇섯다. 作者는 當 이아니라 街頭로 職場 으로 農村으로 直接 生産面에 參加할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하 엿다. 勿論 이것은眞理 에 가까운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文學 의 넓히를 追求할때 반드시 이저서는 아

니될問題가하나잇다 그것은 文學의 깁히이 다. 가령넓히잇는 文學이라면 大衆小說을 現代의 文學形式으로 서는 첫재로 처지 아니 할수없다. 그러나 우 리가 大衆小說이라는데 것을 藝術로지는 데 는 감각이 同意하지 안는것은 무슨 때문 일까? 이것은 다름 아니오 文學으로서깁

[illegible] 衆小說은 [illegible] 藝術品으로지는데는주 저하면서 이것과 絶 對的으로 對蹠的立場 에서는 私小說은 그 다지 名作이아니면 藝 術品으로 認定을맛는 것은 무슨때문일까? 이것은 文學의깁히를 가젓는데서 由來하는 것이니 이러케 생각 하고보면 文學이 藝 術品으로 決定되는것 은 文學의 넓히 보담 文學의 깁히에 잇는것이아닐까? 가령 깍가운例로본다면 프

는 文學의 넓히보다 것을 차출수가업다 비 록 이作家의作品에서 도 上流階級의 生活 相舞踏會니 사롱이니 音樂會니하는 모든社 會의 넓히가업는 바 는아니지마는 이런것 들은 실상엇더한 個 人의 內部生活을 좀 더詳細하게 그리기위 한 한개의 手段이나 方便으로 決코 當代의社 會를 한개 크다란스 케일로 그리려 고해 서 그린것은아니다.

그러나 그대신 이作

家가 世界小說史에남 기고 간功績은 個人 의心理를 깁히追求 해서 나종에는 일직 이 아모도 손대지아 니한 潛在意識面에까 지 到達하엿다는 그 것이다 文學的깁히를 銘記하 지아니할수업는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 시 作家에게 第二의 푸르스트가되기를要求 하는것은아니다. 그러 나 私小說이라고해서 덥허노코 업수히 녁 일것은아니다. 한상 文學 의깁히를 찻는것도作 家의 修道의한 課程 일것이다.

學藝小抄

聲樂硏究所를 李寅善氏가設立

聲樂家 李寅善氏는 市內竹添町一丁目八一에서 病院을 開設하는 一方 聲樂硏究所를 設立하야 聲樂에 對한 精選을 쉬지 안는同時 聲樂徒의 指導에 從事한다는데 同硏究所의 規定은 다음과 갓다

資格 十七歲以上男女

人數 十二人까지

時間 每日午後七時以後

新刊紹介

▲十字架 第七輯(月刊) 發行所 京城府昌信町二三五의二 十字架社 振替京城一七五〇九番 定價 一部四錢

▲月刊ロシヤ 十二月號 發行所 東京市麴町區丸の內二丁目二 日蘇通信社 振替東京六一五〇八番 定價四十錢 送料一錢五厘

▲活泉 十二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三丁目三五 東洋宣敎會聖潔敎會出版部 振替京城一一五五〇番 定價二十錢

▲萬時 十一月號 發行所 東京市麴町區有樂町一ノ二 日本萬國博覽會事務局 振替東京八四二二八番 定價十錢

▲運輸界 十一月號 發行所京城府花園町六一 運輸通信社 振替京城二〇九七六番 定價五十錢

新春懸賞文藝作品募集

應募期限은 十二月十五日까지

◇短篇小說 賞＝一等一篇 五十圓 二等一篇 三十圓 ※※※ 四百字原稿用紙五十枚以上 七十枚以內로하되 純朝鮮文으로 뗴어쓸것

◇戲曲 賞＝若干篇 每篇 三十圓 ※※※ 三幕以內, 四百字原稿紙七十枚以內로하되 上演할수잇는것

◇詩 賞＝若干篇 每篇 五圓 ※※※ 長短, 題目隨意

◇時調 賞＝若干篇 每篇 五圓 ※※※ 題目隨意

◇童話 賞＝若干篇 每篇 十圓 ※※※ 四百字原稿紙十五枚以上 二十枚以內로하되 純朝鮮文으로 뗴어쓸것

◇童謠 賞＝若干篇 每篇 五圓 ※※※ 長短, 題目隨意

◇實話 賞＝若干篇 每篇 十圓 ※※※ 題目은 自由이며 四百字原稿紙二十枚以內

◇兒童作品 賞＝入選品에는薄謝進呈 ※※※ 自由畫, 習字, 作文

【註】 應募作品은 入選與否를 不拘하고 一切返還치아니함 보내실때에는 朝鮮日報學藝部 新春懸賞文藝係라고 明記할것

朝鮮日報學藝部

日本콜럼비아 森永製菓共同主催의 流行歌、漫談、舞踊의밤 本報讀者特別優待

日本콜럼비아 蓄音器會社와森永製品 朝鮮販賣株式會社의 共同主催인 流行歌 漫談 舞踊의밤은 本社後援으로서 오는十二月四日부터 二日間 每夜七時本社大講堂에서 열니게되는바 지금 流行歌手로 有名한 劉鍾燮 金仁淑、蔣鳳鶴諸君과 新銳漫談家로 人氣가노픈黃材景君外에朝鮮券番舞踊團의 出演이 잇다。그리고 招待券은 府內 各 데파-트와 有名한 菓子店에서 森永 밀크초코레-트五十錢어치를 買上하시는분에게 一枚式無料進呈을한다는데 特히 本報讀者에 限해서는 三十錢어치를 買上하시는분에게 一枚式進呈하기로되엿다。

一演奏曲目一

一、流行歌獨唱

劉鍾燮
一、斷腸哀曲 (異河潤詩 筒信幸曲)
二、明沙十里 (張在星詩 筒信幸曲)
三、曠野의달밤 (異河潤詩 阜星燾曲)

金仁淑
一、가슴에지는꼿 (異河潤詩 全基珍曲)
二、北方消息
三、女子의純情 (玄羽詩 崔曙來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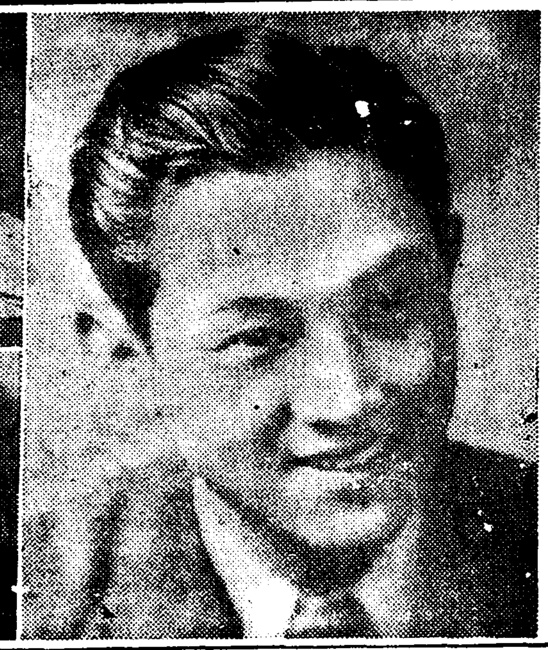
蔣鳳鶴
一、신접사리風景 (昭公子詩 劉一曲)
二、울지마세요 (李讓頒詩 劉一曲)
三、靑春設計圖 (李讓頒詩 李森史曲)

劉鍾燮 金仁淑 共演
一、哀傷의靑春 (異河潤詩 江口夜詩曲)
伴奏 지리오만도린、오-케스트라 主任者 淸水五彦氏 指揮

一、漫談
黃材景 長壽法 우슴哲學

舞踊種目 朝鮮券番舞踊團一同
一、두메아가씨 二、浦口의月光 三、浦口의哀曲 四、월쓰、탕고 五、두사람의사랑을 六、處女總角 七、님자최자저서

(寫眞 左는 劉君 右上은 蔣 下는 金仁淑)



世界를風靡하는 各監督의프로필 그作品과製作態度

쟌·루노알의 作品이 全然日本에 紹介되지 안한것은 아니다。無聲映畫가 二本이나 들어와잇섯다。그러나 루노알의 本領은『貧民窟』에 依해서 비로소 들어낫다고 보아도 過言이아니다。佛蘭西에 잇서서도 루노알은 最近에 와서야 노피 評價되야 잇는 形便이다。

貧民窟은 말할必要도 업시 고리키가 一九〇二年에 쓴 同名의 戲曲을 映畫化한것이다。그런데 그는 그것을 佛蘭西化해서 原作을 만히 變改하얏다。루노알의 貧民窟은 主人公 페페르에게 주어진 明朗한性格으로도 推察되는 바와 가티 貧民窟을 버어 나려는 希望이가득친 貧民窟이엿든것이다。

그것은 佛蘭西人인 루노알이 同國人의 俳優를 써서 貧民窟을 製作하는以上 當然한 歸結이라고 하겟지만은 고리키를 原作者로 가지는以上 숨기지 못할 欠點이다。고리키와는 全然關係가 업시 佛蘭西의 그러한 社會를 그린다면 또 모르되 얼마를 佛蘭西化한다지 人物의 性格을 그러케 變改시킬 것은 못된다。이런에 잇서 이 缺點에는 누구나 一種의 不滿을 품지 아니치 못하는것이다。即 거기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느나라인지 國籍이 未詳한 사람들이 存在하리당。그러한

라는것은 觀客으로서는 承認되나 어데지 모르게 游離된 느낌을 주어 퍽 들어 맛지 안는것갓다。그와 同時에 마치古典劇을 現代人이 演하는것과가티、압서서 엿것스러하고 생각되는 사람과사람의 交涉이展開되야잇다 딸아서 樣式化된 타이프의 재미는 充分以上 엇기때문으로되니만 現實的作品에서는 볼수업는 人間性의 權威하는 獨創을 엇볼수가 잇다。다시 換言하면 곳 演出의 재미잇는점이다

루노알은 果然 獨創家의 아름다운곳이잇서서 外見的의것에도 表現의 眞個를 너허주는 藝術的 素質한 才能을 가추어가지고 잇다。그 映畫의 畫面이사람의 머리에 기피 배히고 또 獨特한 押法이 잇는것처럼 認識되는 것도 그까닭이다。

前記의 큰 不滿도 映畫價值를 賞하는데 잇서서는 그다지 障害가 되지 안는다。드리어人間의 深刻를 明確히하고잇다 勿論 잔·가반、루이·주베가티 一流의 名俳優들이 萬一 엇엇다고 본다면 그러한 效果도 그처럼 나타낼수가 잇섯슬까 그것은 疑問이지만서도—。

明日의新星 新人스타-들 그經歷과地位 —(一)—

이전에는 원파스·스타-라는것이잇섯다。每年 그翌年度의 活躍을 期待할수잇는新人을 十三人 選出發表해서여러가지로 紹介도하고 推獎도하는것이엿다。그러나 이數年來로는 이원파·스타 라고 하는新人選出의 시스템이 업서젓스나 그래도 今年度만하드래도 新人이 輩出하여서 明年度에 活躍이期待되는 新人에만해도 그中에서도 有望한 몃몃사람을 골라보기로하자。

먼저 RKO라디오에는 죤·폰테인이라고하는 新人이잇다 카사린·헵프만의 主演한『僞裝의女子』에 잠깐 얼굴만나타내인것이 彼女로서는 最初映畫出演이엿다 아니 映畫뿐아니라 彼女는『僞裝의女子』에 나오기까지는 진실로 얼굴도업는게집애엿섯다 그리다가 어『僞裝의女子』가 試寫를 한뒤에는 라디오의 幹部間에서 彼女는 아주 훌륭하다는 衆議를 어더서 俄然好評를밧는데 그뒤『戀愛에는敵이업다』와 다른한개의作品에 出演하엿다。프로듀서 ─ 인제스 라스키는 스크린의 彼女를보고『저女子는반드시大成할것을 나는斷言한다』고까지 말하엿다。그리고 라스키는自己의말을 實現하기위해서 彼女에게 놀라운 찬스를 주엇다。그것은 라스키의作品이고 니노·마르티니의主演한『마나님께音樂』이다。이때까지 無名이엿든 彼女는인제훌륭하게 니노·마르티니의 相對役이되엿다

허리웃드의最高給 포-웰의月收六十萬圓

대체로 米國의 人氣俳優는 얼마나한給料를 밧는가? 最近의 調査에 依하면 워리암·포웰이 一週間 三萬五千弗로 제 斷然 壓倒的인데 最近까지는 콘스탄·베네트嬢이 一週 二萬五千弗로 第一位를占하엿다고한다 三萬五千弗이라고하면 約十四萬五千圓 달로 치면 六十萬圓가운 給料라고하니 놀라운일이다。

라디오

三十日(火曜)

◇午後六時 어야기『난쟁이나라』─걸리버─旅行記中 尹石重
◇同六時二十五分 新聞
◇同六時三十分 講演『生活의科學化』 中央高普 趙炳俊
◇同七時四十分 趣味講演『매산양이야기』 中樞院參議 玄櫶
◇同八時十分 라듸오코메듸『新舊衝突』一場
配役
金承官(舊式老人) 柳一
金俊植(그의아들) 孫流星
朴英愛(俊植의안해) 黃銀順
朴博士(英愛의아버지) 鄭哲
朴晶愛(朴博士의큰딸) 徐玉打
放送劇同友會
指揮 柳上月 效果 孫流星
◇同八時五〇分 唱劇調 一、短歌 天下太平 二、唱劇調 박타령 唱手 宋萬甲 韓成俊

뉴-쓰映畫때문에 國産映畫輸出增 今年度의總計三千百卷

輸出映畫가 다무엇이냐하든것은 벌서 지나간 넷말이아기가되고 事變以來 뉴-쓰의 輸出이 만허진때문인지 再昨年까지는 滿洲 支那 比律賓 米國 加奈陀 濠洲 蘇聯 英領印度等에 布哇 브라질 等이가지 나지안든것이 最近에와서는 新嘉坡 蘭領印度 新西蘭 海峽 土耳其 佛蘭西 濠大利 伊太利 丁抹 瑞西 和蘭 西班牙 포-란드 白耳義 英國 墨西哥 큐-바 브라질 아르젠틴 메루- 南阿聯邦等도 輸出國이되여서、合計 三十餘個國이라는 多數에 達하엿다。

그러나 뉴-쓰一本이나 重要映畫一本程度의 輸出을하는 데도잇서서 數量으로보면 十一年의 總計가 三千七十九卷에 지나지못하고 興行映畫는 松竹의六十卷(支那·米國·比律賓 브라질 加奈陀 메루- 瑞西蘇聯) 日活의七十卷(支那 米國 佛蘭西 比律賓 브라질 加奈陀 메루-)가 가장 만흔편 分布狀態는 盲腸의二十五國(百六十二卷) 新興社의 十二國(三百二卷)이 만흔편으로서 根本的國策의 國際文化라는 意味로서는 아직 前途遼遠하다고한다。

十二月一日(水曜)

◇午前一〇時三〇分 料理講話『여주수는法』
◇午後〇時五分 京畿立唱 一、놀량 二、앞산打鈴 三、뒷山打鈴 四、개고리打鈴 五、자진방아타령 蘇完俊 韓仁孝 柳開東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保健三題『飲料水와保健』 城大講師 崔壽俊
◇同六時 兒童と先生の時間 一、お見おくり(讀本卷四、十課) 二、孝中之(讀本卷八、十五課) 仁峴普通學校 二年生 四年生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防火에對하야』 京畿道警察部長 高安彦
◇同七時四〇分 講演『朝鮮米穀分布에對하야』 朴萬奎
◇同八時一〇分 軍歌工夫『軍歌』 鈴美合唱團 指導 鈴木美佐保
◇同八時二五分 一、楚漢歌 二、夢金浦打鈴 三、山念佛 四、興甫雜歌 五、朴淵瀑布 六、興打鈴 金玉仙 大笒 金永根
◇同八時四〇分 滿洲로부터(哈爾濱) 滿洲新歌曲 一、秋江曲 二、月明之夜 三、夜來香 四、好朋友來了 六、昭君怨 七、…
◇同九時(東)管絃樂(獨唱合唱附) 日比谷公會堂으로부터中繼 交響曲 第二番D短調 베-토-벤作曲 終曲 (矢田部勁吉譯詞) 獨唱 소프라노 武岡鶴代 同 알토 西內靜子 同 테나- 木川晴 同 빠스 矢田部勁吉 合唱 東京高等音樂學院生徒及同調會員 管絃樂 新交響樂團 指揮 山田耕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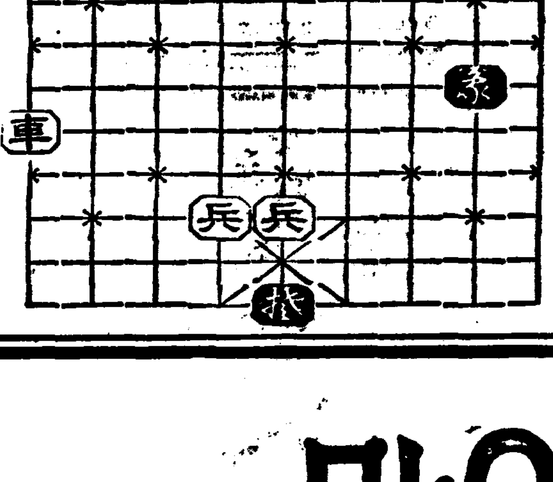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東) 落語
◇同六時 (東)物語
◇同六時二五分(城)講演
◇同七時三〇分(東)講演
◇同八時一〇(東)聯曲
◇同八時四〇分 滿洲音樂
◇同九時 (東)管絃樂

二日(木曜)

◇午前一〇時 觀音部隊戰歿者告別式實況(國語)─步兵第七十七聯隊營庭으로부터中繼
◇午後零時五分 俗曲 一、散調 二、城主푸리 三、새타령 伽倻琴 丁南希 玄琴 申快童 大笒 朴鍾基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保健三題『運藥과保健』 朴容海
◇同六時 唱歌劇『孝女沈淸』全二景 旺新童友會 指導伴奏 金泰哲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防空法施行에對하야』 總督府資源課長 丹下郁太郎
◇同七時四〇分 詩調『時局과半島同胞의自覺』 (解評)沈天風 中樞院參議 成元慶
◇同八時一〇分 歌謠曲 一、遲軍歌 二、露營歌 三、曠野의달밤 四、新傷哀曲 五、放浪哀曲 伴奏 DK管絃團 劉鍾燮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江上에등등 二、唱劇調 赤壁歌
◇同九時 古談『言中有言』 鼓手 池龍九 唱 曹弄玉 金瀅璽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東)落語
◇同六時 (東)日本英傑
◇同六時二五分 (城)講演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同八時 (東)戰線風景
◇同八時三五分 (東)講談
◇同九時 (大)小說

◇博譜大集 46 【昨題解答】



獨逸의스타- 리스트到着

지난 廿三日 午前十一時 橫濱入港의 獨逸汽船 구나이제나우號로 獨逸토비스映畫의 俳優제프·리스트君이 來朝하엿다 토비스와 國光映畫와의 提携로 말미아마 日、獨親善映畫로서 第二의『新土』를 만드려고하는『國民의盟誓』에 主演하려왓는데 同君은 스키-의 選手權保持者이엿고 十種競技의 覇權을 獲得한일도잇는 스포-츠俳優로서 널리紹介된 映畫로서는『몽·브랑의暴風』『SOS의氷心』等에出演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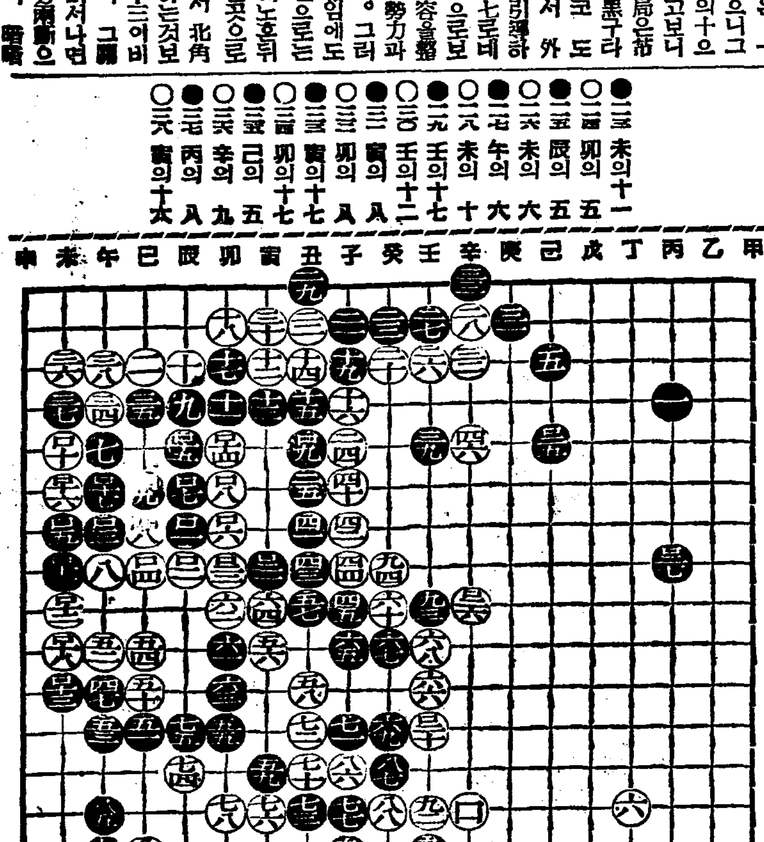
『國民의盟誓』는 日本側으로서는 山本嘉次郞監督、獨逸側으로는 윌프강·바드에가 監督하기로되엿고 카메라는『新土』의 撮影者리히알트、앙그스트가 當하기로 決定되여잇스며 英獨兩國語版을製作해서來春四月에는 伯林에서 封切될 豫定이라고한다。

大馬相戰의芇과 不戰而勝할計畫 그러나白의禍根艾除는 戰局의有利한發展端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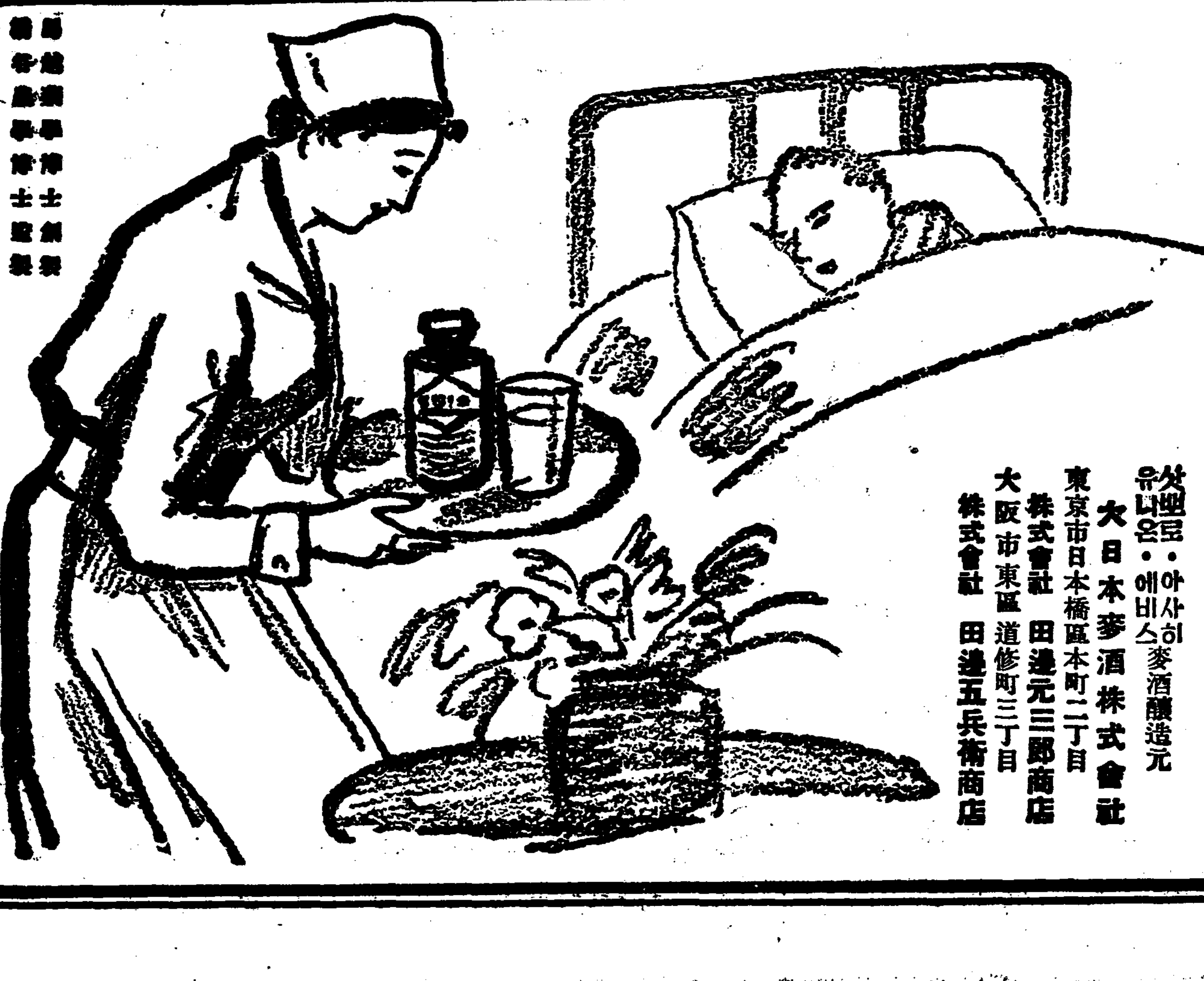
本社獨占 國手爭覇譜 (8)
白 蔡極文
黑(先) 丁奎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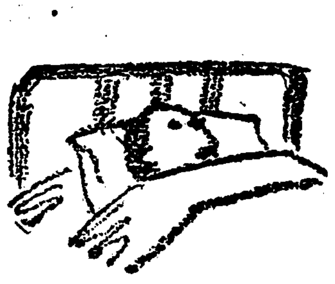
그러나 白은 百戰老將이라그런 敵將의 用策에 빠지지는 안허서 不問曲直하고 一二〇을 壬의十二로 막으니黑의 秘計는 水泡로 도라가고 芇이되는 大馬相戰에 엇서서 一手를 促한지라 黑一二一은 寅의八로 白一二二는 卯의八로 酬應되여 다시 手數가 相等하게되엿다。그적새黑一二三은 寅의十七로 敵陣中에 드러가니 白一二四는 卯의十一로 進路를 遮斷햇는데 形勢로보면 이것도 그다지적은것은 아닌데 黑이 이것을 버리고 다시 東角으로 驅車를하여 一二五를 巳의五로定着하니 白은 一二六 辛의九로가서 이때까지는 白이 腰食이 달수업스리만치 禍根으로 생각해왓스나 終着의 져룰를 엿지못하든 黑九三 壬의九를 戰取하엿다。그러데黑

黑一二三이 未의十一로 녀러서 白의滅戶를 꾀하니 白은 一二四 卯의五로 드려와서 黑과 가든陣法을엿다。그러니 黑一二五는 不得已 辰의五로 一戶를 完全히내이니 白은 다시 一二六을 未의六으로 드러가 끗까지侵略的態度를 변치아니함으로 黑은 一一七을 午의六으로 이으니그적에야 白一二八이 未의十으로 이은지라 이러케되고보니 彼此의 實力較技에 結局은芇으로 되고말것임으로 黑은다여 促手應策을 쓰지안코 도리여 어것을 忽略로해서 外方의勢力을 有利하게 引彈하려고 一一九를 壬의十七로데려서니 여것은 外見上으로보면 黑이 西北邊의 陣容을整頓하는同時에 北角의 勢力과 連絡을 圖하려는것이다。그러나 勿論 이러한 策戰임에도 事實이지마는 다른意味로는 西北邊의 陣容을 整頓해노흐면 에白의應手가 萬若 다른곳으로 간다면 黑은 그들혹타서 北角의勢力과 連絡을 圖하는것보담 먼저 壬의十二 十三이비여잇슴으로 中央大軍이 그周門으로 脫出의가리 버서나면서 白의包圍陣을 一刀兩斷으로 끈허보려는 妙策이 暗晦



이 先着의機會를 가지고 己의五에 着手한것은 지금의局勢로보아 勝算이 確實하니까 구타여 兵火를 이르켜 士卒人民으로하여금 塗炭에 들게 할것업시 領土만擴張해서 不戰而勝을 하려하는것이지마는 가령·黑이 己의五로가지말고 먼저 辛의九로가서 壬의九를 다려내여왓다고 限定을한다면 販勢는 엇더케될것인가? 우선白으로말하면 東南邊 中央의 陣容이未備하니 세상업서도 辛의七쯤으로 應手하지아니치못할것이니 그러거든 다시 己의九로 범러노흐면 白은 中斷된兩軍이 다不利하니 첫재 應手에 困難해서 끗까지 被動的으로 나가는同時에 黑은全局의 權勢를 마음대로 掌握할것인데 白이 辛의九를 占領하고보니 아직도 黑에게 勝算이 업는바는아니나 그대신白은 絕對의禍根을 艾除하엿슴으로 後顧의 患이업게되여 어데서 戰火가 이러나든저 自由自在로 發戰할수가잇게되엿다。그러나 黑은 終始初志를 변치안코 다시 一二七을 丙의八로 범러 東角에 無邊廣濶한 領土를 장만하니 白은 一二八을 寅의十六으로 가서 黑一二目을 取하야 어느程度의 領土均等을 꾀하엿스나 白이 萬若 己의五丙의八로 가지안코 먼저辛의九己의九로 벌러드면 白은 어寅의十六으로 戰取할機會가잇가지엇섯슬것이다 (赤松子觀戰記)





입맛을돗아주고 위장을튼튼히하는

병상에 오래 누어계신분이나 허약하신분은 구미가떠러저서 음식물을 잘잡수시지못하게 되야 병은점점 중하여가게되며 쇠약은 더욱 심하게되어 오래끌게됩니다 이것은 사람몸에필요한 비타민비가 부족된까닭에 위장그자체의 활동력이 약해저서 잡수시는藥도 완전한效果를 내지못하기때문에 그런것이니 무엇보다도 먼저 비타민비의 진국인 에비오스錠을 服用하시면 먹은약과 음식이 모다몸에불어서 속히 병도낫고 쇠약도곧회복됩니다

從來의 榮養劑처름 먹은 그分量곱엇치만 듯는것과는 全然다르니 보통잡수시는飮食物을全部 榮養化식혀주어서 모도 살과피로가게하고 병환으로 인하야생긴 榮養不足과衰弱을 全部補充하여줍니다

변통이좃치못하시다고 흔히使用하시는 一時的설사藥과는 根本的으로다르니 自然的으로 잘 消化된것을 순순히 나오게하여주어서 便秘로인하야생기는 모든病을豫防하며 늘거분이 상쾌케하여주고 배속이 편해집니다

エビオス錠 (에비오스정)

一〇〇錠…一圓六十錢
1000錠…四圓八十錢
그외粉末도잇습니다
全道藥房에서販賣함

삿뽀로·아사히 유니온·에비스麥酒釀造元
大日本麥酒株式會社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 株式會社 田邊元三郞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三丁目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EB-K-63

來月六日總會席上에서 各分科會意見綜合
京畿道產調委員會案으로"產業是"를決定
總督府와京畿道에建議!

전시체제아래의 경기도 산업경제계의 발흥을 목표로하야지난구월신문발부터 따민권위자를망라하야 경기도 산업조사위원회가 열린이후 농업(農業) 림업(林業) 수산(水產)상공(商工)의 각분과회를 여러차례로 열어가분과회의 의견이 결정되엿거니와 이제 그각부회의의견이완성되엿스므로 드되여 오는십이월륙일오후 한시부터 경기도청회의실에서 그각부문을 통할총회를 열게되엿다 이회의에서 전기각분과회의제출의견을종합한번다시 종합적으로 부의하야 이를결정한다음 각각총독부또는 경기도당국에 이를건의또는 진정하기로 되엿다 이리하야이기도의 산업조사위원회의성안이 결국경기도의 산업시(產業是)가 되고그 구체적시설을할것으로 이위원회의 적극적활동은 물론 경기도뿐만아니라 전조선의 산업경제계의 동향에중대한 시사를주는것으로 중대한의의를 가지고잇다

仁川道立醫院 明春四月竣工

【仁川】 현재 인천부산수정(仁川府山手町)에잇는 인천 도립의원은 협착할뿐아니라 건물도폐손되야 한참그개축을 고려하든중 금년하기에 부내화정(花町)에 기지 사천여평을 매입하고 신원사를 십팔만원 공비로 신축중이든바 근근그준공을 보게되야 느저도 명년사월에는 신원사로 이전케되리라한다

電燈架設에도 有無따라差別

【仁川】 경전(京電)인천지점에서는 어디까지독점하고잇는만큼 간간히 그우리한테도가적지안타는바 데 이제인천부내에서 부민의불평을총합한바에의하면 인천부구역이확장되야 인가가격증하는반면에 전등가설도증가되고잇스나 이를회사에신청하면 일개월내지 이개월을경과하고잇슬뿐아니라 설치한것은 일본인가정에서신청한것은 곳파이삼일내에가설하야주어 그차별대우가 가장극심하다는바 이에는개항공사계급에서 이뜻을 회사에 질문하면 통까지동으로 원료부족이라고거절한다하야부민간에불평은가장비등하고잇다한다

新蔘發賣압두고 開城蔘界또紛糾
製蔘者와販賣者間協定挫折로
孫洪駿氏突然辭任

【開城】 개성인삼개척자로 공헌이 만흔고손봉상(孫鳳祥)씨의유업을 계승하야 현재개성인삼동업조합(開城人蔘同業組合)과인삼판매조합(人蔘販賣組合)의 조합장으로서 백여명삼상(蔘商)의대표로서 활약하든 손홍준(孫洪駿)씨가 지난이십칠일 돌연전기인삼판매 조합에 사표를제출하야 신삼매출을 압두고분규를거듭하는 개성삼업계에 또커다란파문을 이르키게되엿다 기자는 지난 십구일전기 손씨를방문하고 동조합장을 사임케된연유를 물엇든바씨는 자못 침통한 표정으로 격의업시 소회를 피력하얏다

孫洪駿氏談 나는인삼판매인 조합에 관계만잇슬뿐 아니라 제조회사인 개성삼업주식회사(開城蔘業株式會社)에도 중역인만큼선친(孫鳳祥氏)의 유업을 뒤이여 장래 삼도개성의 대국을위하야 로력해보겟다는 정신이엿는데 일직이 판매업자의 상권옹호기관인 인삼판매조합을 건설하야 쌍방이 판매협정 조약을맺저 앙영이 떠들든 삼업계를 명랑케해보려애썻슴도 사실이나 신삼매출기인 오늘날 제조회사대조합간에는 분규문제로 주장이 대립상충되여 판매협정은 될가망이업고 분규에 분규만거듭하게 되는데 우리판매조합의주장은 금년신삼은 매근에 이십오전식 보조금을 걸리시키고 전부 공동구입(共同購入)하겟다는것이나 전기제조회사는 협정조약대로 조합원개인에게 팔지 조합에 일수판매는 절대불응 한다는것과 또는 보조금은 매근에 륙십전식 바더야만 팔겟다는것이다 그래서 손씨는 조합에안판다면 나개인에게 법적으로 의업불매를하면 될수잇지안느냐고 주장햇스나 고만 이문제도 불응이되고 도전기 보조금문제만해도판매량은 시인하나 재산회량은 시인치 못한다는 견해미테서쌍시전이하는 절대 적립총이인할수업다하므로 그야말로 양각지전(兩角之戰)과 가러서 과차감정만 대립될뿐!한동의 해결책이 묘연하야 씨는 이사면초가의 입장을 어찌할수업서 단

霞城消防組發會式

【金浦】 김포하성소방조(霞城消防組)결성문제로 금년봄부터 면당국과경찰당국에서는 그설치에대한 제반준비에 착수하엿든바그간면내각유지자치에서는 자진적기부금이 일천오십원이나되엿슴으로 이제그이가를 어더가지고 지난십팔일오전십일시에 하성공립보통학교운동장에서 발회식을거행하엿다한다 당일은 일기도청명하고 소방조원의활발한태도는 일반시민으로하야금 안심을주게하엿다 도전서장(稻田署長)의성명이 끗난후 권군수(權郡守)의 축사가 잇섯고 민면장(閔面長)의주최로 일반소방조원의 위로연이 잇섯다고한다

慘落!또慘落!
山積한배추와무
仁川街頭의頭痛꺼리

【仁川】 금년은 각종채소가 대풍작이라하야 우리네 살림사리에매년문제가 되여잇는 김장때에는 채소갑시 저락되리라든 것이 도리혀 김장때에는 작년가격에비하야 저락된것이 업든형편이든바 작금김장때를지나자 채소갑시 참락하야백채는 일전내오리내지이전 무는 십오전지이십오전까지도 참락되야비대중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나 물건주인은 두통을 알코잇슬뿐아니라 때가때인만큼 사는편이업서 물건처리에 곤난하다는 기현상을 일으키고잇다한다

米國간仁川"왕겨"
防火、防音、保溫에使用
桑港에서仁川商議에報告

【仁川】 군산항으로 박게사용되는 미국(米國)"싼푸란시스코"에 수출되얏든 왕겨가 약해하게 되엿다지안튼 왕겨에대한 용도보고 하는 그간솔선보도한바와 갓거니와 쌀의이천은로부터 과바미 열소로부터 대판부여판을 루하서가"싼푸란시스코"일본상품진열소로부터 대판부여판을 루하야인천 상공회의소에 도착된보고서에 의하면 왕겨의 용도는 "구라시"(自動車用)각공장에서 사용하고 그외에 방화(防火)방음(防音)보온(保溫)등 그용도가 만하다는 그이야말로 만흔인견 에매한 정보가 전하야왓다한다

新設楓溪普校 來月一日開校

【平澤】 평택군포승면(平澤郡浦升面)지방에는 보교를신설하기로 되엿다함은 본지에루차보도하야 루차보도한바어니와 지난이십삼일부로 교사신축공사의 경영인가를바더엇슴으로 도비보조 청원중촌(淸原中村)조에 최저가격으로 락찰되엿스나 동신일으로 금년중으로는 공사만하고 건물완성은 명년봄에 완성될터이라하며 오는십이월일일에 복거영유원(楓溪英語學院)강당에서 개교식을 거행하리라하는데 신교사가완성될때까지 어원사전체를 빌려 사용하기로하고 학원생도수업은 당분간휴학하리라하며 군당국과 학교기성회에서는 개교식에관한 준비에분망중이라고한다

本報讀者慰安音樂映畫大會

時日 十二月八日부터一週間 (每日 午後六時半)
場所 本社大講堂에서
招待券 十二月五日現在讀者에게進呈함

種類 映畫 本社製作映畫三卷、隊長뿌리바九卷、薔花紅蓮傳七卷
音樂 빅타管絃樂團及歌手總出演

主催 朝鮮日報社

═長篇小說═ 花冠 【115】
李泰俊 作　金奎澤 畵

첫항구 (六)

「그까짓 또 팔아먹을걸 물러만 노면 뭘하는냐구? 물러 놋는건 금순을 구하는것이 못될가 정말?」

경을 보게된다。마침 자기에게는 한비가 왓다。자기에게도업서서는 안될 돈이다。그러나이우바가족의 어린것들을 뭉처업는 눈보래치는 행길로 밀려나는 꼴은 참고 볼수가 업다。

동옥은 전에 동석오빠가 권해서 읽어본 노서아의작가 알치빼숍의『노동자세리오프』란소설생각이 난다。한 대학생이자기엽방에 들어 살던 구차한가족이 여러달 방세를 내지못해서 아이들은 만코 기픈 겨울인데로 쫏겨나게되는 팜 대학생은 견디다 못해 자기의학비로 그들의 방세를 내여주엇다。방세를 내여주어 그들이 다시 따스한 방안으로 드러오게 될때、그들의 눈물 흘리는 감사를 바들때、이대학생의 마음은 여간 편안하고 여간 즐겁지 안헛다。그리자 친구인세리오프가 차저왓다。대학생은 자기의 기행을 이친구에게 자랑하엿다。그러나 이야기를 듯는 이 친구 세리오프는 조곰도 칭찬하려는 기색이 보히지 안는다。천진란만하든 대학생의 얼굴은 차츰 변하여가면 업신녁이는 불평이 가득해지고 분노에 라며 치솟는 해염 이런맛으로 대학생들을 이주는것이엿다。

「너 그럼 잘햇다구 생각허니? 그집은 마침 네 눈에띄엿게 망정이다 네눈에 안띄이는 그런집이 이세상에 얼마나 만흔지 너 아니? 넌세상에 그런집은 모주리 차저다니며 도아줄테냐? 또그집하나만이라두 잘한짓은 아니다 네가 만일 방세 안내 주어봐라 그집은 다 죽던지 그러치 안흐면 지금보다는 잘 살、무슨 행동을 할게다。그런걸 넌 그집이 그저남의집에서 방세에 몰리며 사는그런 비참한 운명을 또작작고 계속해나가게해논것뿐이다!」

동옥은 자기자신도 그장면을 읽을때 여간 통쾌하지 안헛다 이 소설을 읽고 얼마동안은거지에게 돈이나 밥이나 구지주지 안헛것도 생각난다。

「난 무론 지금도 그 세리오프의말엔 무한히 경의를 표한다!왜? 그는 그 소극적인 대학생의행동을 지방할만치 큰 적극적행동을 해낸사람이니까… 말로만 햇다면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한낫 기분이요 한낫 감상(感傷)에 불과할것이다! 행동이업시 말로만의세리오프들、그따윈 만명이 잇더라도 소극적으로라도 행동이 잇는 대학생 하나만 못할것이 아닌가? 행동은 저 시집갈 준비로 정기예금하는거밧겐 아무것도 업는 노오주붐으로、물러만 노면 뭘해? 또 팔아먹을걸 하는것따윈 진정한 걱정이 아니라 일종의 핑게일것이다! 말만은 아름답게 가장 뜻잇서뵈게 꾸밀줄 아는 지식분자의 약며운 핑게일것이다! 또 팔아먹으면 또 구하면 될것 아니냐다 난 사상이기전에 인정으로다! 이봉을 돕는것도 우선 인정으로다우선 인정이 업는속에 남을위하는 사상이 자라나지 못할것이다! 세리오프 가튼 사람도 먼저한때는 그 대학생가튼 소극적이나마 인정의사도엿슬걸 나는 믿구싶다!금순일 구하자! 우선 팔려가는걸 물러놋는것만도 훌륭히 그를 구하는 사실일엔 틀리지 안흘것이다。꼭 다시팔려간다 하더라도 구할수잇는때까지는구 해야한다 저녁을 먹일수가 업스리라해서 줄수잇는 점심부터 주지 안코 미리 굶기는것은 결코의도 사상도 아닐것이다!」

동옥은다시 돈을 어더보기로 생각한다。

「참! 일백삼십원이지만 사십원은 유필아버지가 써대니까금순네가 물어놀건 구십원이면 된다! 구십원? 내 수입으로 입봉에게 부치구 한달에 기껏해야 오륙원씩박겐 여유가 업슬게다。오원씩 구십원을? 열여덟달? 또 이자가 잇슬게구…… 그러치만 한 이태동안 월급을 한오원씩덜밧는셈만 치면 된다!」

동옥은 이번에는 최용자선생을 차저갓다。살림에 늘 쪼들려지내는 분이라 그분자신에게 여유가 잇스리라고 해서보다빗을 엇는길이 잇슬가해서이다。

최선생은 노선생처럼 냉정하지는 안헛다。그러나

「빗좀 달랄만한데 무근빗에걸려 어디 차저알수나 잇서야지…」

하고 한탄을 하더니

「여보 임선생? 김선생님한테 말 안해봣수?」

하는것이엿다。

「김히운서생님요?」

「그럼 그이 아우님이 돈도이허다우 그선생님 말슴이면돈한 구십원쯤야 안 될라구… 참 김선생님 오늘 숙직이시니까 학교로 가면 계실걸」

동옥은 나섯길이라 야회에는 좀 늣더라도 바로 학교로달리엿다。

全安療治 十
麻藥中毒療養院
京城府西大門町二一番地

京城商專速修法 藥物學講義
藥劑師試驗改正其他一切追加再版出來
金字美本三百五十頁 定價三、五〇 送料三十錢

胎兒의骨格強化
滋養飲料

カルピス

時期切迫!!
カレンダー의御下命은 電光一九一〇番으로
製造卸 カレンダー團扇商 杉本商店
京城西小門町五四
本店大阪 京城支店

京城鍾路二丁目七三
ツバメ速達社
電話光七八五番

樂譜
世界童謠曲集 四十錢
伊太利名曲集 六十錢
安基永作曲集第三 八十錢
京城壽松町三六 音樂社
振替京城二二一五三番

㊍朝報案內

自動車 取締規則新版賣出 定價(要二錢切手)
★新學期開始生徒大募集
朝鮮總督認可 京城自動車學校
京城府太平通二丁目

外務社員招聘
經驗有無不問하고 努力奮鬪의士를求함 二十五歲以上의有給外務社員을招聘、鮮內各地駐在可、希望者는 履歷書를 京城府長谷川町一二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 朝鮮支部長 白石 電話本局一三三四番

ミシン係募集
一、販賣員 內鮮人男女 經驗不問 數名
一、採用 中學卒業以上廿五歲ヨリ四十歲迄 京城居住 保證人二名
一、調査係補助 鮮人一名 採用 中學卒業以上 十七歲ヨリ卅歲迄
一、締切 十二月三日 履歷書送附之
京城府南大門通 三菱商事株式會社 京城ビル五階

朝光送年號不遠絕版
速히注文하시오 定價四十錢

ライト發動機
在庫品多數
時節柄特價賣出
特許 長谷部式製麵機
特許 スピード膨脹機

京城府元町一丁目一一七
長谷部工場營業所
電話龍山一四三七番

見本進呈
新發賣世界的發明ゴールデン金ペン付エボ軸高級萬年筆實物宣傳을爲하야一名一本限實姓名을彫刻하야進呈함 但送料로서三錢切手二十枚同封至急申込하시요 先着順으로進呈함
申込先 東京市中野區本局橫通り 紀伊國屋宣傳部

CHOJIYA—CHOJI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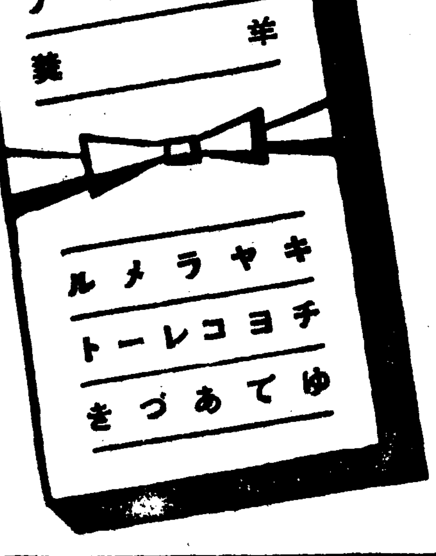
迎春用 一日より廿日まで
モーニング、セビロ
別誂大會
精撰せる生地に入念仕立。絕對的低廉價格。
迎春用セビロ、モーニング御用命の好機
別誂特價
モーニングコート ¥48.00……¥68.00
縞ズボン ¥23.00……¥25.00
セビロ三揃 ¥48.00……¥63.00
京城 丁子屋

衛生口錠 口中殺菌劑
カオール 가오-루
便利하고도더욱적인
携帶用防濕瓶을 신발매하옵니다
三百粒入 정가 二十五錢

똑것을 비틀지안코도 簡單히使用할수잇스며 濕氣를完全히防止하고 携帶키도便利한德用的인 이容器를쓰시면 늘新鮮한氣分으로 本劑를服用하실수잇습니다

定價와容量		
袋入	(十錢)	百粒
同	(二十錢)	二百五十粒
王冠形容器付	(三十錢)	三百粒
御勾玉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瓢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美術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保健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德用瓶入	(五十錢)	八百粒
同	(一圓)	二千二百粒

慰問袋에カオール
本劑는입으로들어오는병균을막고 疲勞를恢復식히며 精神을상쾌케하는특효가잇음으로 陣中에서 꼭必要되는藥品입니다 防濕瓶은濕氣를完全히防止하는고로 特히慰問品으로서 好評을밧고잇습니다
가오-루는입으로들어오는병을막고정신을상쾌케합니다
本舖 株式會社 安藤井筒堂藥品部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明治の菓子 의
品質・榮養 風味・共히 優良無比!
宮內省御用達 明治製菓株式會社


十二月一日 封切
換氣溫風 房完備
東寶映畫超特作 松井稔 監督
愛國情熱 八人の娘の今
霧立のぼる 袖田千鶴子 能勢妙子 佐伯秀男 主演
パラマウント超特作
東日・大每・時局シネ情報部提供 日獨伊防共成立記念映畫 防共十字軍
東日大每特別編輯 世界の動き
大每・大朝 事變ニュース
若劇

資金偏重으로 一般市場萎縮

十一月中京城商況과金融 朝鮮銀行本店調査

▲米 朝鮮米第一回收穫豫想高는 二四、七五〇千石(比前年實收五、三四二千石增)이라는 發表로 一時人氣를 ... 하얏스나 古米는 이미 一掃되고 新米도 收穫期關係와 許可制度에依하야 賣物이 적어 品薄이 繼續되고 또는 發表로 人氣回復을 보게되어 正租九錢一厘 三等玄米三十一圓三〇錢을 示하게되엇다。 그러데 今後의動向은 一言으로 米의 出廻狀況如何에 달렷다고 內地農家의 賣惜으로 內地市場이 品薄이기때문에 朝鮮米移出은 良好를 呈하야 ... 九日

市勢 上旬 中旬 下旬 [illegible]

▲大豆 古大豆는 이미 品薄을 告하고 早晚大豆도 出廻遲延의 結果 上旬市勢는 意外로 强調이엇다。

▲小麥 北支方面에의 麥粉輸出이 減少되어 어떠때문에 小麥은 賣惜의 傾向이 ...

▲肥料 [illegible]

▲綿絲布、人絹 [illegible]

▲土建材料 木材의 需要不振 [illegible]

▲金融 [illegible]

最高標準價格制 綿織物에도擴張

朝鮮은아직態度未定

綿業委員會에서는 從來棉花及廿番手綿絲의 最高標準價格을 決定하고 每週土曜日에 發表코잇는데 今回의 最高價格制를 擴張하야 綿絲에는 廿番手、十六番手及三十番手에도 最高價格制를 實施하고 이것을 其他番手에 及하는同時에 綿織物에 對하야서는 爲先統制가 完備한 『찌-스』及綿三綾에 最高標準價格制를 設定하기로되어 二十七日에 各其發表하얏는데 今週의 綿織物最高價格은 如左하다

一、『찌-스』百十二本物 三十吋三十碼建一反에 四圓三十錢 受渡月十三年一月、二月、三月渡▲基準綿絲最高標準價格二十番手一梱二百二十七圓五十錢▲一圓五十錢變動마다 一反에二錢

二、綿三綾 百二十本物習通二十四吋三十碼建一反에 四圓三十錢▲受渡月同上▲基準同上▲一圓五十錢變動마다 一反에二錢

運用方法(抄)

一、最高價格이라함은 生産者가市場에 供給하는價格의 最高限度를 말함

一、市中賣買價格은 最高價格에 그百分二를 加한것을 超함을不得함 形式의如何를不問하고 實質上最高價格을 超過하는 代金을授受하는것가튼 方法으로 取引함을 不得함

一、最高標準價格은 每土曜日이것을 發表함 發表는 商工省으로부터 日本綿織物工業組合聯合會에 通達하고 同聯合會에서 即日 發表함

【註】『찌-스』(Geanse)라함은 綿布의一種으로서 細綾 三枚綾의 綿布로서 原絲는 廿番手乃至二十四番手를 使用하고 幅은三十吋長三十碼乃至四十碼 重量은八乃至十三封度

以上과가티棉花綿絲 綿織物에 最高價格制가 實施되는데 朝鮮內某紡績會社幹部는 이에對하야 다음과가티말한다

朝鮮에서는 아직態度가 未定이다 이번綿織物에對하야서는 最高價格을 實施한것이 『찌-스』와 綿三綾인데 前者는輸出用이오 後者는國內、一般消費者에 半半되는것으로 別로問題가 되는것이아니다

鮮銀券發行 또新記錄示現

二億五千五百萬圓臺

膨脹一途의鮮銀券發行高는 米資金其他로 繼續增發되어 三十日總額에依하면 二億五千五百七十六萬八千圓으로서 前日보다도또百六十一萬三千圓의增發이엇다

一月以降入超

六億四千六百萬圓 下旬出超는千八百萬圓

【東京電話同盟】十一月下旬對外貿易概算은左와如함 (單位千圓)

輸出	八九、五五八
輸入	七一、三三〇
合計	一六〇、八八八
出超	一八、二二八
一月以降入超累計	六四六、六三五

銀行營業時間

一日부터十時—四時

京城組合銀行은 十二月一日부터 營業時間을 一時局續下하야 午前十時부터 午後四時까지로한다

東拓米資受入

東拓의 今年度米穀應急低利資金配定六百九十萬圓은 十二月一日前年度低資의 償還과 同時에 振替로受入키로되엇다

農業經營粗放化

農林省調査 意外로生産力減退

事業影響자못深刻

【東京】今次事變이 農村에及한影響에對하야 農林省에서는 三班의調査班을 全國各地에派遣하고 實情을踏査식히엇는데 各班의調査도 大體一段落을지엇슴으로 近間各班報告를모아 農林省의事變對策決定의 重要指針으로하기로되엇다。

各調査班의報告를綜合하면 事變에依한 農業生産力의 減退가意外로深刻하며 特히重視되는것은 動力不足에依한 裏作反別의減少、播種期의逸期、桑園의管理와養蠶飼育의粗放化、多角經營困難等이 눈에띄인다 就中稻作以外의耕種에잇서 麥類를비롯하야 桑種、豆類、菜蔬等 一般으로作付減退가 憂慮되며 어대로推移하면 農業經營의 粗放化는不可避로보인다

東拓農地 田作注力

東拓의 對朝鮮內農地經營方針은 正租收納五十萬石을目標로하얏스나 今年度는이目標를完全히突破하얏슴으로 이에伴하야 支社地所課에서는 一兩年來研究調査한것에基하야 畓經營과 併進하야 田作經營의 改良指導方針에 努力을傾注할方針으로 決定되엇다 現在東拓의農地에서 田作으로된것은 新溪、沙里院等黃海道、全南、慶北의集團地를가지고잇고 棉作、小麥이栽培되는데 東拓에서는 本格的으로此等의 肥培管理의 徹底指導에 進出할 意向이다 現在此等田作地도 正租納이 되어잇서 이것도 再檢討를 加하리라한다

그러나 勿論畓에는 繼續하야 中心主義이엇스나 耕作改善을 繼續할것이오 小規模의 水利事業其他는 着着實行에 入하엿다한다

優秀油使用의 傾向이强化

橋本朝石社長談

日石社長兼朝鮮石油社長인 橋本圭三郎氏는 朝石總會에 出席키爲하야 二十八日 入京하얏는데

石油界에서 最近注目할것은 朝鮮石油의 發達에依하야 오크단남바의 高度高級油를 使用하는傾向이 强해지고 米國과如함은 今日一〇〇以上의 오크단남바의것을 使用하며 또供給할수잇게되엇는데 我國에서는 從來이것이 七八十이엇든것이 如斯한 傾向에依하야 現在는當社의元山工場에서 九十一、二의것이된다 이것이 能率을增進할때 注目된傾向이다 滿洲石油의 增資는 二千萬圓으로 決定되고 來年一月定時總會에 附議키로되엇고 帝國燃料는 來月十五日乃至二十日까지에 創立總會를 終了케되엇다

朝窒때문에三分一로減한 中小石鹼工業또重壓

兩油脂會社에서製造計畫

朝鮮內의 中小石鹼製造工場은 朝鮮窒素의 硬化油一貫製造開始以來 全然價格的으로 競爭이不可能케되어 釜山 京城 平壤各地의二十餘工場은 三分一로減하고 그間에 苦痛中인데 最近에至하야 魚油로부터의 一貫的石鹼製造의計劃이 朝鮮油脂及協同油脂에서 進行되고잇다 即朝鮮油脂系에서는 淸津에서原油로부터 一貫的으로 石鹼을製造하고 同系統의 內地의硬化油와 石鹼別工場의 非能率을是正할意向이라한다 一方協同油脂에서도 三陟의原料工場과共히 地의利를 得한釜山에 石鹼工場을 新設할計劃이 着着進行되고잇다 이런大工場計劃은 苦難에울고잇는 中小石鹼工業에 重大한壓力을加케되리라한다

今月末마음 諸會社決算

十一月三十日로서 當期決算을마음하는諸會社는 朝鮮取引所 小林鑛業 朝鮮國産自動車 朝鮮信託 龍山工作 朝鮮도렉지 朝鮮麥酒 朝鮮紡織 京城紡織 朝鮮印刷等으로 其中朝鮮信託(六分) 龍山工作(一割) 朝鮮도렉지(一割二分) 朝鮮麥酒(八分) 朝鮮紡織(一割) 京城紡織(七分) 朝鮮印刷(一割)는 配當据置方針이오 朝鮮取引所는 二分減인 一割六分으로內定 小林鑛業은 二分增配인一割確實 朝鮮國産自動車는初配當으로서 一割乃至八分모양이라한다

朝鮮對北支 主要輸出入品

昨年度의金額調査

品中主要한것의 昨年度金額調査는如左하다 (單位圓)

▲主要輸出品

米	二四、〇〇〇、〇〇〇
海産物	四〇〇、〇〇〇
林檎	一三〇、〇〇〇
鰮罐詰	一、一五〇、〇〇〇
紅蔘	一、三〇〇、〇〇〇
黑鉛	一四〇、〇〇〇
原木	一八〇、〇〇〇
鑛	九二八、〇〇〇
紙類	六二〇、〇〇〇
粟	五、〇〇〇、〇〇〇

▲主要輸入品

胡麻	一、一二〇、〇〇〇
鹽	一、一五〇、〇〇〇
麻布	一、四五〇、〇〇〇
石炭	九一〇、〇〇〇
鐵	四四〇、〇〇〇

小運送統制 朝鮮도促進?

朝運社長更迭로注目

朝鮮의 小運送統制는 業界事情이內地와 相當히달르며 또內地의 實績에徵하야 一兩年後라는 소리가 有力하얏스나 今回朝鮮運送의 社長更迭에依하야 中野氏에代한 村上義一氏는 小運送業의 公共的性質과 統制論의 有力한主張者로서 現在內地의新統制도 民間으로서는 氏가推進力이되엇던만큼 氏의朝鮮運送社長就任은 어느局面에 一轉換을 가저올것이 必至로보인다 鐵道當局으로서는 [illegible] 前年以來內地의 統制問題와 呼應하야 新統制의 [illegible]

▲村上氏談 二十九日朝鮮運送定時總會에서 新社長에選任된 日本通運副社長村上義一氏는 如左히말한다

中野社長이 我國運送界에 큰足跡을남기고 勇退하고 그後任으로서 내가推薦되어 朝運社長으로서 就任케되엇는데 本運送의 國家的重要性을 다하지 못하나 多幸히 洞合事務以下社員諸君의 援助를 得하야 使命을 다하고저한다 나의運送에對한 생각은 大運送과 小運送을 一貫하야 合理化하는곳에 國民負擔의 輕減이 잇다고생각한다 나의信念은 小運送이라는것이 가장 重要한 公共的事業인데 不拘하고 從來運送생각하는때로대단히 侮蔑的으로 取扱된것은 非常히遺憾이다 今日運送은 他經濟部門과가티 훌륭한補助事業이다 從하야 여긔에待望는 社會的地位를 向上케함이 絕對로 必要하다고생각한다 나의運送界에投身한 所以도이點에잇고 今日이라도 그心境은 變치안는다

各社總會一束

▲義州鑛山 義州鑛山에서는 三十日午前十一時부터 第十五期定時總會를開催、左記利益金處分案을可決하얏다 (單位圓) 當期純益金 七七、九七二 前期繰越金 一一、〇一七 合計 八八、九八九 法定積立金 五、〇〇〇 別途積立金 一二五、〇〇〇 役員賞與金 七、七〇〇 株主配當(年一割)二五、〇〇〇 株主特別配當(年四分)一〇、〇〇〇 後期繰越金 一六、二八九

▲都市經營 朝鮮都市經營에서는 三十日午前十時부터 定時總會를開催하고 左記決算案(二分增配一割)을 可決하고 取締役靑木、藤原、正木監査役 鶴福龍、熊谷의諸氏任期滿了에伴한 改選은 熊谷、保佐氏를除하고全部重任 熊谷氏의後任에는 平山良吉氏(東拓)

寸鐵

○津田鐘紡社長의時局談을紹介하면

○『現在의統制主義는 『칼텔』助成의結果로되어 矛盾을露呈』

○『國家의統制는 大衆利益擁護에서 出發해야한다』

○『獨占과는 달러서 製品의六〇%를 輸出하는 日本으로서는 統制를 廢하고 自由競爭에 委하라』고

○民間에 大鐘紡을 마음대로하게하라는 一言에 歸함이아닐까?

○松原氏鮮銀總裁談은 一般에好評이어서고

○林藏相의 『惡質分子는 政府가 斷平處置』는 ... 事實이겟지......

經濟界消息

○京城府營住宅建設案 [illegible]

○朝鮮商議聯合會 日本商議에서可決된 日本商議第十回總會에서 朝鮮商議提案인 『國防産業振興에關한建議案』은 滿場一致로可決되엇다

○東拓鑛業總會 東拓鑛業에서는 三十日 東京에서 定時總會를開催 四分配當案을 議決하얏다

○中野金次郎氏 朝鮮運送社長을 引退한中野金次郎氏는 二十九日定時總會後 同社相談役으로 推薦되엇다

○義州鑛山納付金 [illegible]

○富士興業 [illegible]

○朝鮮穀物協會總會 七日로延期 [illegible]

○米倉會社移轉=朝鮮米穀倉庫會社에서는 十二月中旬 千代田町으로移轉키로決定

○都市經營威興住宅地造成 [illegible]

株式 保合어나强調

今日의市勢 (三十日)

[illegible]

前場浮動

[illegible]

後場昂騰

[illegible]

非凡한底堅狀

[illegible]

當分保合而已

[illegible]

國債 短資硬化軟調

[illegible]

期米 平穩裡에 納會

前場小戾

[illegible]

市場六感

[illegible]

阪仁稍漸擴納

[illegible]

新甫發會豫想

來月二日에發會될 新甫二月限은 依例히上期發會의序幕에入하엿스나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正米 月末關係 閑況

京城不變

[illegible]

仁川保合

[illegible]

釜山少弛

[illegible]

大邱閑散

[illegible]

各地新甫豫想

[illegible]

群山昂進

[illegible]

木浦保合

[illegible]

今日財界 (三十日)

[illegible]

京城物價 (三十日)

[illegible]

▲大阪株式情報

[illegible]

海外經濟 (二十九日)

[illegible]

銀行券 (二十九日)

[illegible]

鰯油粕·麥粉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illegible]

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illegible]

綿絲布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株式

[illegible]

期米

[illegible]

生糸

[illegible]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長一九一〇·一六一三·九六

朝取取引員 昭和證券株式會社 京城明治町一丁目 電本代表長二三六

朝取 金益證券 京城府黃金町二丁目

京城·證券部·期米部·仁川 福 吉村取引店